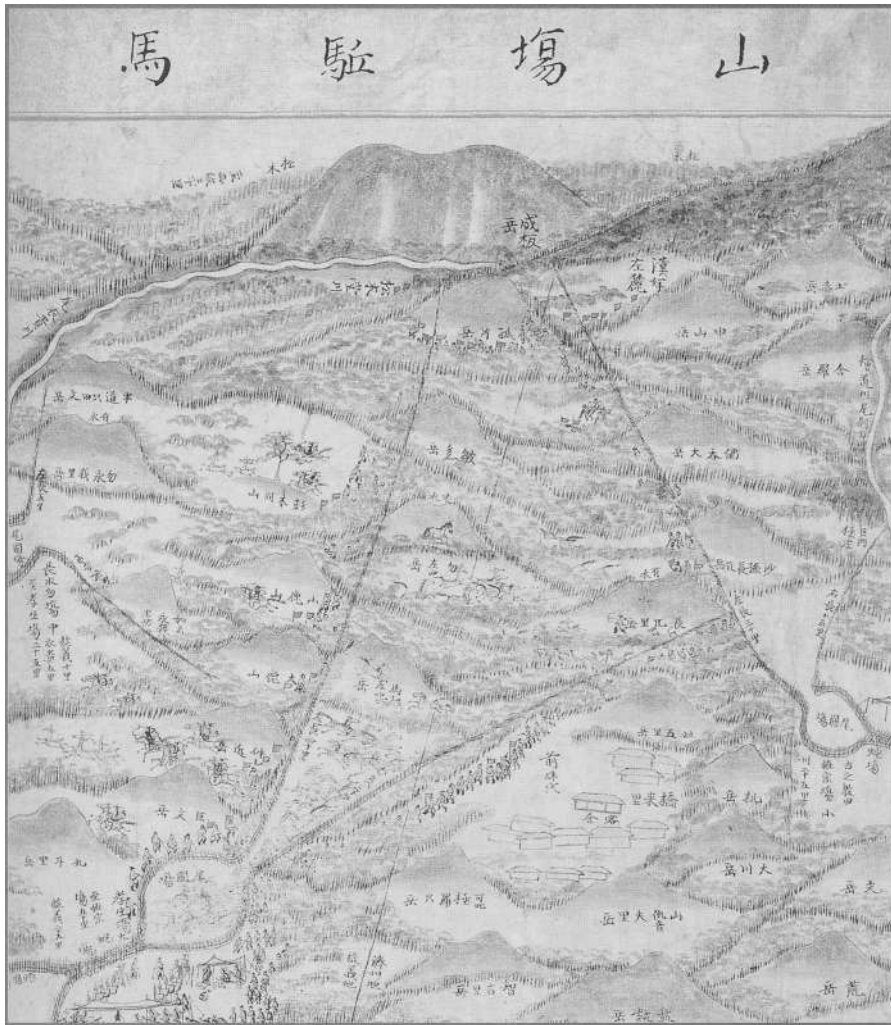


제4장 남 원 음



남원읍(南元邑)

남원읍의 동쪽은 표선면 토산리와 접하고 서쪽은 하효동, 상호동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이다.

그 사이에는 강우시에만 유하하는 건천이지만 신흥천, 의귀천, 서중천, 전포천, 종남천, 신례천 등 산간에서 발원하여 남쪽바다로 흘러간다.



따라서 선사시대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공간 역시 이들 하천(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¹⁾

- 한남리, 남원리, 태흥리 신석기 유적 등은 BC3,000년 ~ BC1,000년 어간의 유적들이며
- 신례리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탐라국 형성기인 BC200년 ~ AD3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 하례리, 남원리, 태흥리 유물 산포지, 하례리 바위 그늘집 자리 등은 탐라 전기인 AD200년 ~ AD500년 어간의 유적들이며
- 신례리와 한남리 바위 그늘집 자리 등은 탐라후기인 AD500 ~ AD1105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1년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문헌상으로 남원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 이다.

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34~159쪽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전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縣)을 설치하였다. 그 동도현에는 신촌(新村), 함덕(咸德), 김녕(金寧), 토산(兔山), 호아(狐兒 : 일명 狐村)현을 설치했으니 이는 제주목이 속현이었고 그중 호아현 전체와 토산현 서부가 오늘의 남원읍 지경이다. 이렇게 토산현과 호아현이 고려 충렬왕시부터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남원읍은 오래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설촌역사도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후 고려시대가 지나고 조선이 개국 되었다.

1416년(태종 16) 5월에 도안무사(都按撫使)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아뢰어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그와 더불어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으니 당연히 남원읍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 의하면 남원읍 지역에는 호촌면(狐村面)이 있었다.

그 후 18세기말에 대정현이 면을 개편할 때 남원읍은 정의현 읍성인 성읍리(城邑里)와 과히 멀지 않은 거리에 놓여있고 현의 중앙지역에 위치함으로 중면(中面)에 속하게 되었다. 그때 면을 구획함에 있어서는 정의현에 있어서는 하천을 경계로 하고 좌측에 있으면 좌면으로, 우측에 있으면 우면으로, 중앙에는 중면하는 식으로 방위에 따라 명명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중면 토산리(兔山里)에 속해있던 온천리(溫川里)가 분리되었다. 2)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中面)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에 온천리가 서중면 관할로 표시되어 있음을 미루어 보아 동중면과 서중면 분할을 할 때 온천리는 서중면 구역으로 획정

2)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17쪽

된 듯 하다. 따라서 남원읍과 마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 1789년(정조 13)호구 총수

狐村面 : 水望里, 東義貴里, 保閑里, 西義貴里, 火等里, 又尾里, 狐村里

○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中面 : 水望里, 東衣貴里, 西衣貴里, 保閑里, 火等里, 又尾里, 狐村里, 이때 남원읍은 현 표선면의 表善里, 細花里, 兎山里, 加時岳里, 安坐岳里와 함께 정의현 중면에 소속되어 있었다.

○ 1872년(고종 9) 제주삼읍 전도

西中面 : 又美里, 保閑里, 湍川里, 衣貴里, 東衣里, 水望里, 漢南里, 東衣貴里, 禮村里, 梧旨里

○ 1899년(광무 3) 정의군읍지

西中面 : 湍川里, 水望里, 漢南里, 東衣貴里, 西衣貴里, 東保閑里, 西保閑里, 上禮村里, 下禮村里, 東爲美里, 西爲美里

○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호구 가간총책

西中面 : 湍川里, 水望里, 東水里, 東衣里, 新衣里, 漢南里, 保閑里, 東保里, 西衣里, 東美里, 新美里, 爲美里, 禮村里, 下禮里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西中面 : 新興里, 衣貴里, 漢南里, 泰興里, 南元里, 新禮里, 爲美里, 下禮里, 水望里

한편 중면이 된 후 남원읍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19세기 중반에 중면 토산리(兎山里)에 속해있던 온천리(湍川里)가 분리되었다.

○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서중면 풍헌을 서중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

3) 오창명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61~83쪽

- 正)·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서기(書記)를 두었다.
-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관임관대우 국가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의귀리 1495번지에 개설하였다.
 -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어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이 되었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 : 가시리)와 토산리 일부를 서중면 온천리에 통합하고 마을이름도 신흥리(新興里)라 하였다. 그리고 이때 동중면의 안좌리 일부를 수망리에, 우면(右面) 상효리(上孝里)일부는 하례리에 각각 병합되었다.
 - 1915년 5월 1일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이 되었으며
 -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경제·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 1926년 3월 20일 면사무소를 남원리 205-1번지로 이전하였다.
 - 1928년 서중면의 마을명칭은 신흥, 태흥, 남원, 의귀, 수망, 한남, 위미, 신례, 하례 등 9개리로 오늘의 법정리와 일치한다.
 - 1935년 4월 1일 서중면을 남원면으로 개칭하였으며
 -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면이 되었다.
 - 1960년 5월 1일 위미리 2892-2번지에 남원읍 위미출장소를 신설하였고
 -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 2004년 7월 1일 위미출장소가 폐지되었다.
 -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 남원읍이 되었다.
 - 2009년 11월 30일 현재 남원읍의 면적은 188.45km²에 인구는 18,495명이다. 지역내에 법정리가 9개이고 행정리가 17개이며 자연마을은 49개이다. 그리고 도서(島嶼)로는 위미리에 지귀도(地歸島)가 있으며 면적은 87,424m²이다.

현재 남원읍의 법정리와 행정리는 다음과 같다.

법 정 리	행 정 리
남 원 리	남원1리, 남원2리
신 흥 리	신흥1리, 신흥2리
태 흥 리	태흥1리, 태흥2리, 태흥3리
의 귀 리	의귀리
수 망 리	수망리
한 남 리	한남리
위 미 리	위미1리, 위미2리, 위미3리
신 례 리	신례1리, 신례2리
하 례 리	하례1리, 하례2리

1. 남원1리의 설촌유래

남원1리는 서중천(西中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태흥1리이고, 서쪽은 연디벵디에 있는 셸룻개연대(金路浦煙臺)로 위미3리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은 바다이며 북쪽은 남원2리와 접해있다.



남원1리는 서중천 하류에서 서쪽으로 500m정도 떨어진 해안가인 속칭 ‘성뒷왓’지경에서 신석기토기편이 발견되었다. 이로 미루어보아 아마도 기원전 2,000년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⁴⁾

그러나 선사시대(기원이전)나 원사(原史)시대(AD1~300)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계속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고 서웃귀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점차 해안가로 내려와 정착하면서 마을을 이루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후 광지동(廣池洞 : 넓은못동네)일대에 동래정씨(東萊鄭氏), 제주양씨(濟州梁氏), 김해김씨(金海金氏)가, 그리고 제산잇개 일대에 제주고씨(濟州高氏)가 들어왔고, 이어서 다른 씨족들도 모여들어 삶의 터전을 개척해 나갔다.⁵⁾

이 마을은 원래 서의귀리(西衣貴里)에 속하였으며 서의귀리는 20세기 초에 귀(貴)자를 생략하여 서의리(西衣里)라 하였다.

조선시대후기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서의리 남쪽을 남원리라 하였다.

남원이란 이름은 옛날 이 마을북부에 의귀원(衣貴院)이 있었는데 그 남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남원(南院)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남쪽의 으뜸이라 하여 원(院)

4) 남원을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40쪽

5) 오창명 제주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28쪽

을 원(元)으로 고쳐 불러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불리지고 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 : 일명 狐村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서의귀리가 되었고, 18세기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에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中面) 서의귀리(西衣貴里)가 되었다.⁶⁾ 한편 서의귀리라는 표기과정에서 귀(貴)를 생략하여 서의리라고 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이 마을은 서중면에 속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으며 마을 북쪽의 서의리와 남쪽에 위치한 남원리를 구분하였다.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이 되었다. 이때 남원리와 서의리(西衣里)를 합쳐서 남원리라 하였다. 그 뒤 해인 1915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남원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남원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따라서 의귀리에 두었던 기관도 일주도로변으로 이전케 되었다. 이에 따라 의귀리 1532번지에 두었던 경찰주재소를 1925년 4월 5일 남원리 1243번지로, 의귀리 1495번지에 두었던 서중면사무소를 1926년 3월 20일 남원리(205-1번지)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고 남원1구와 2구로 나누어졌다. 즉 북쪽에 설촌된 서의리지역을 남원1구로, 해안마을인 제산잇개와 광지동일대는 남원2구로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남원리가 되었다. 그후 남원2구는 남원1리로, 남원1구는 남원2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92쪽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현재 남원1리는 비안동(飛雁洞), 중앙동(中央洞), 광지동(廣池洞), 신성동(新成洞)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비안동은 남원리 220번지 일대이며 읍사무소 북쪽 300m지점이다. 이 지역일대에는 돌무더기가 많으며 지형은 마치 기러기가 날아가는 듯한 형상이므로 ‘놀안이며들’이라 하였다. 놀안이는 날다의 날(飛)자와 기러기 안(雁)자의 합성어이고, 며들은 돌무더기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중앙동은 남원중학교 서쪽에 위치하여 남원1리 중심마을이므로 중앙동(中央洞)이라 하였다. 광지동은 남원리 1480번지 일대(동부소방서 남원119안전센터)에 위치한 동네이다. 남원리 설촌터의 하나이고, 넓은 연못이 가운데 있어 연유한 이름이다. 후에 한자 표기로 광지동(廣池洞)이라 하였다. 신성동은 광지동 서쪽 일주도로변에 형성되었으며 1941년에 새로 설촌하였기에 신성동(新成洞)이라 하였다. 7)

이곳 2490-8번지 연디벙디에는 1439년(세종 21)에 축조한 금로포연대(金路浦煙臺, 쉼룻개연대)가 자리 잡아 해안을 경계하고 유사시 연기를 피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신성동마을은 1948년 4·3사건으로 남원1리 본동으로 소개하였다가 1957년에 복귀하여 정착하였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남원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가 되었다. 현재 남원읍의 소재지로서 행정, 교육,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8)

7) 남제주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209·213쪽

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66~267, 296~297쪽

2. 남원2리의 설촌유래

남원2리는 서중천(西中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태흥1리이고, 서쪽은 위미3리이며, 남쪽은 남원1리 그리고 북쪽은 의귀리와 한남리에 접해있다. 이 마을은 의귀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서웃귀’라고 칭했다.



이 마을의 설촌은 1374년(공민왕 23) 합적(哈赤)의 난 때 목호 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 : 탐라지에는 職員石邦里甫介⁹⁾)가 죽었고, 그 부인 정씨(鄭氏)가 일생동안 개가하지 아니하여 그 후에 열녀비가 인근 정비못(한남리 4번지일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아 적어도 1374년 이전에 설촌된 것으로 보인다. 그후 동래정씨(東萊鄭氏), 연주현씨(延州玄氏), 군위오씨(軍威吳氏)가 들어왔으며 마을외곽에 산재한 선묘의 연대를 미루어 500여년 이전에 이곳에 정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김씨, 고씨, 송씨가 정착하여 마을이 확산되어 갔다.

1750년경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는 서의귀원(西衣貴院), 정씨문(鄭氏門)이 표기되어 있다. 1872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서의귀리(西衣貴里)가 표시되어 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濟州牧)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여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

9) 탐라지 정의현조에는 ‘職員石邦里甫介’라 하였으며, 증보탐라지, 제주읍 일도리 담수계 편집 1954년 392쪽에도 ‘職員石邦里甫介’라 하였음.

조선왕조실록 세종 10년 10월(丙午)조에는 정의현직원(職員)석아보리개(石阿甫里介)라 하였고, 도광(道光) 14년(1834년 순조 34) 3월 절제사겸방어사인 한응호(韓應浩)가 고쳐 세운 열녀정씨지려에는 고려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지처로 되었다.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252쪽에는 심재집에 기록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先是旌義衣貴村 有軍校夫姓之妻 未詳 何姓夫死 守節 事聞旌閭鄭實 得聞古語載於 周洪兩傳之下

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서의귀리가 되었고,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中面) 서의귀리(西衣貴里)가 되었다. 한편 서의귀리라는 표기과정에서 귀(貴)를 생략하여 서의리라고 하였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중면)에는 서의귀리 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3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31호, 남자는 70명, 여자는 115명이다. (西衣貴里 自官門 西距三十里, 民戶三十一, 男七十, 女一百十五)¹⁰⁾

남원2리에는 조선시대 원(院)을 설치하였다. 원이란 역원(驛院)이라고도 하며 목(牧)과 현(縣)을 왕래하는 주요도로변을 따라 여행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세운 관립여관이었다.¹¹⁾

해동지도 제주삼현도에서 서의귀원(西衣貴院)¹²⁾, 탐라지초본에 의귀원(義貴院)¹³⁾, 남사일록에 의귀원(衣貴院)¹⁴⁾, 정의군지도에 의귀원(衣貴院)¹⁵⁾이 있다고 하였다. 이 의귀원에서 구한길(남원2리~한남리경계)을 따라 자배봉 앞을 통하여 서쪽으로 나가면 또 하나의 역원인 영천관(靈泉館)에 이른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서의리(西衣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에 펴낸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는 서의리의 연가는 116호이다. 남자 246명과 여자 260명을 합하여 506명이이고 초가는 225칸이다.(西衣, 烟家一百十六戶, 男二百四十六口, 女二百六十口, 草家二百二十五間)¹⁶⁾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었으며 마을 북쪽의 서의리와 남쪽에 위치한 남원

1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0쪽

1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1쪽

12) 1750년경 해동지도, 제주삼현도,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5쪽

13) 李源祚 탐라지초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240쪽

14) 李增 南槎日錄, 제주문화원, 2001, 143쪽

15) 1872년 정의군지도,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51쪽

16)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29쪽

리를 구분하였다.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으며 이때 행정구역폐합으로 남원리와 서의리를 통합하여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남원리라 하였다. 1915년에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남원리가 되었다.

1925년 4월 4일에는 경찰주재소를, 1926년 3월 20일에는 서중면사무소를 각각 의귀리에서 남원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을 남원면으로 개칭되었고 남원1구와 2구로 나누어졌다. 즉 북쪽에 설촌된 서의리 지역을 남원1구로, 해안마을인 재산잇개와 광지동 일대는 남원2구로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남원리가 되었다. 그후 남원1구는 남원2리, 남원2구는 남원1리로 변경되었다. 1948년 43사건으로 마을은 남원1리로 소개하여 한동안 폐허가 되었다가 1950년 월산동에 성을 쌓아 재건하였다. 이때 남원1구와 남원2구가 남원리로 통합되었다가 1953년 현재의 남원1리, 남원2리로 분리되었다.

현재 남원2리는 수은동(水銀洞), 월산동(月山洞), 서의동(西衣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수은동은 남원리 2490-7번지 일대이다. 이곳에 있는 못의 물이 너무 맑아 달이 떠올라 물에 비치면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당초 수월동(水月洞)으로 부르다가 수은동으로 바뀌었다. 월산동은 남원리 1092번지 일대이며, 130여년전에 설촌된 마을로 서의동과 남원1리 중앙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을 내려다보면 초승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의동은 남원리 683번지 일대이며, 설촌한지 오래된 마을로 ‘서쪽옷귀’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남원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남원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가 되었다.

3. 신흥1리의 설촌유래

신흥1리는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표선면 토산2리이고, 서쪽은 태흥3리이며, 남쪽은 바다이다. 그리고 북쪽은 신흥2리로 남원읍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은 원래 ‘여우내’ 또는 ‘여운내’로 불리었고,



1872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온천리(溫川里)로 표시되어 있다. 1780년경에 처음으로 이씨가 방구동(防龜洞 349번지)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후 계속되지 않고 대가 끊기고 말았다. 1791년에 이웃 토산리에서 경주김씨가 방구동으로 넘어와 정착하였고, 인근 보말동(保末洞)에는 1835년에 김신창이 들어와 기거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금은 경주김씨(慶州金氏), 제주고씨(濟州高氏), 군위오씨(軍威吳氏)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토산현(兔山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토산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에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토산리에 속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이 마을은 온천리(溫川里)라 칭하였고 토산리에서 분리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中面)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

도에 온천리가 서중면관할로 표시되어 있음을 미루어보아 동중면과 서중면을 분할할 때 온천리는 서중면 구역으로 획정된 듯하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동중면)에 온천의 연기는 51호이다. 남자 97명과 여자 102명을 합하여 199명이고, 초가는 144칸이다.(溫川 煙家 五十一戶 男九十七口 女一百二口 合一百九十九口 草家一百四十四間)라고 하였다.¹⁷⁾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온천리가 되었다. 이때 온천리는 서중면의 동의리(東衣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와 토산리(兔山里) 일부를 통합하여 새로 일어나라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흥리라 하였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신흥리가 되었고,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신흥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신흥리가 되었다. 그후 1961년 8월 보말동(保末洞)과 방구동(防龜洞) 지역을 신흥1리로, 온천동(溫川洞, 여우내 일대), 고수동(古水洞, 박수물 일대), 석수동(石水洞)을 신흥2리 관할로 정하였다.

현재 신흥1리는 보말동과 방구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보말동은 보말개라고도 하며, 이 일대지형이 마치 바닷가에 서식하는 패류의 하나인 고동처럼 형성된 데다 자연포구를 이루고 있는데서 연유한다. 이후 한자표기에 따라 밤고동의 제주어인 보말의 음을 취하여 보말동으로 표시했다. 방구동은 이 일대지형지세가 거북이 형국으로 된 능선으로 마을을 에워싸 방어한다고 하여 방구동이라 하였다.¹⁸⁾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신흥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흥1리는 제주특

17)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16쪽

18)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32~333쪽

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가 되었다.¹⁹⁾

4. 신흥2리의 설촌유래

신흥2리는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표선면 토산1리이고, 서쪽은 태흥3리이며, 남쪽은 신흥1리다. 그리고 북쪽은 목장지대를 지나 표선면 가시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은 원래 ‘여우내’ 또는 ‘여온내’, ‘드슨내마을’

등으로 불리었고, 1872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에는 온천리(溫川里)로 표시되어 있다. 1760년(영조 36)경에 광산김씨(光山金氏)가 여온내에 들어와 살면서 동네가 만들어졌고 이분들이 살던 집을 ‘동집’과 ‘웃동집’, ‘섯집’ 등으로 불렀다. 또한 200여 년 전에는 ‘석동이터’ 일대에도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 그후 ‘고송이물’과 ‘박수물’ 일대에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고수동(古水洞)’이라 하였고, ‘물도왓’에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여 ‘수도동(水道洞)’이라 하였다.²⁰⁾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토산현(兎山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토산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 호아현(狐

1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87~288·343~344쪽

2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45~346쪽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41쪽

(1760년(영조 36)경에 토산에서 광산김씨인 鳴秋, 鳴輝, 鳴煥 3형제가 여우내로 이주하여 마을을 이루었음.)

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에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토산리에 속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이 마을은 온천리(溫川里)라 칭하였고 토산리에서 분리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中面)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하였다. 한편 1872년(고종 9) 제주삼읍전도에 온천리가 서중면관할로 표시되어 있음을 미루어보아 동중면과 서중면을 분할할 때 온천리는 서중면 구역으로 획정된 듯하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동중면)에 온천의 연가는 51호이다. 남자 97명과 여자 102명을 합하여 199명이고, 초가는 144칸이다.(溫川煙家五十一戶 男九十七口 女一百二口 合一百九十九口 草家一百四十四間)라고 하였다.²¹⁾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온천리가 되었다. 이때 온천리는 서중면의 동의리(東衣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와 토산리(兎山里) 일부를 통합하여 새로 일어나라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신흥리라 하였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신흥리가 되었고,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신흥리가 되었다. 그 후 1948년 4·3사건이 발발하자 11월 14일 해안마을로 소개를 하여 한겨울을 보낸 후 1950년 봄에 다시 옛 마을중심부에 축성을 하고 되돌아왔다. 1951년 음 1월 15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마을청년 3명이 순직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1961년 8월 신흥1리와 2리로 나누게 되었는데 신흥2리는 속칭 온천동(溫川洞 여우내일대)과 석수동(石水洞 석동이터일대), 고수동(古水洞 고승이물과 박수동,

2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46쪽

물도왔일대) 등 3개의 자연마을으로 이루어져있다. 온천동은 신흥2리 중심마을이며, 마을 안에 생수가 없어 미지근한 봉천수(奉天水)를 식수로 사용하였다하여 온천동이라 칭하였다. 석수동은 신흥리 800번지 일대이며 200여년 전에 석동이란 이가 처음 이주해와 정착한데서 ‘석’자를 취하고 물이 좋은 곳이라 하여 ‘수’자를 취하여 석수동이라 지었다. 고수동에는 고승이 물이 있으며 고씨성을 가진 스님이 지나다가 목욕을 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박수물은 이 지방에 샘이 없어 물이 박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박수물일대는 원래 서토산이라 불렀고 일제강점기인 1913년 세부측량시 신흥리로 넘어오게 되었다. 물도왔은 물두둑 밖의 밭이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²²⁾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신흥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흥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가 되었다.

22)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37~341쪽

5. 태흥1리의 설촌유래

태흥1리는 의귀천을 경계로 동쪽은 태흥2리이고, 서쪽은 서중천으로 남원1리와 접하고 있다.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의귀리이다.



이 마을 옛 이름은 ‘펼개’로 불리었고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²³⁾, 남사일

록(南槎日錄, 1679~1680)²⁴⁾,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矚 1703)²⁵⁾,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²⁶⁾, 제주삼읍총지도(18세기중반) 등에 벌포(伐浦 : 펼개)로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소금밭에 펼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제주삼읍전도(1872)²⁷⁾, 정의군지도(1872)²⁸⁾, 증보탐라지(정의현 면촌)²⁹⁾ 등에는 보한리(保閑里)로, 정의군읍지(1899)에 서보한리(西保閑里)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이 마을에 사람들이 거주 역사를 살펴보면 태흥1리와 태흥2리간을 흐르는 의귀천하류인 해변 서쪽 경작지에서 괄지식 적갈색 토기편과 석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귀천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법련사 부근일대의 경작지에서도 괄지식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탐라전기(AD 200~500) 때의 유물들

23) 남사록역주(상), 제주문화원, 2008, 126쪽

24)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143쪽

25)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1쪽

2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27)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44쪽

28)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50쪽

2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로 보아지며 이에 따라 태흥1리지역에 사람들이 거주역사도 탐라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³⁰⁾

이 마을의 설촌은 서기 1100년경 태흥리 1553번지를 비롯한 속칭 소수(沼水)물 근처인 목은가름을 중심으로 연주현씨(延州玄氏)와 군위오씨(軍威吳氏)가 들어와 살았고, 그 후에 여산송씨(礪山宋氏), 경주김씨(慶州金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진주강씨(晉州姜氏), 동래정씨(東萊鄭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장수총고분과 장수무덤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후미에 이를 기록기로 하겠다.³¹⁾

1270년(원종 11) 9월부터 제주도바닷가 300여리에 걸쳐 환해장성을 쌓았는데 그 석성유적이 태흥1리 해안에 지금도 140여미터가 남아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하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보한리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보한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3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19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58명이다.(保閑里 自官門西距二十三里 民戶十九 男三十五 女五十八)³²⁾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서보한리가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서보한리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 보한의 연가는 102호이고, 남자 208명과 여자 220명을 합하여 428명이다.(保閑 煙家一百

3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53쪽

3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69쪽

32)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二戶 男二百八口 女二百二十口 合四百二十八口)³³⁾라고 하였다.

1902년(광무 6)에는 전라남도 보성출신인 이기원(李基元)과 이 마을 김계형(金桂滢)이 의논하여 태흥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서 태흥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태흥리가 되었다.

원래 태흥리는 1구와 2구로 분리되었으나 1952년 8월 25일 태흥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취락이 확대됨에 따라 1955년 9월 30일 1리·2리·3리로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1월 25일 다시 통합되었다가 동년 8월 1일 1리·2리·3리로 재차 나누어졌으니 여러 번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였다.

현재 태흥1리는 서소동(西沼洞), 가원동(加元洞), 진은동(陣隱洞), 위엄동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서소동은 태흥1리 바닷가에 바닷물에 육지가 찢기는 포구가 있어 이를 세수개 또는 서수포라 하였다. 그리고 태흥1리 서중천 중류에 길이 300m, 폭 40m, 수심 7m나 되는 깊은 소(沼)가 있어 이를 소서물이라 하였다. 서소동은 서수포와 소서물이 머리글자를 따서 서소동이라 하였다. 가원동은 메머들 남동쪽에 조성된 마을이며, 진은동은 복병을 감추었던 숲이라는 데서 연유했다는 설과 장수총의 주인공인 날개 돋은 장수가 관군에 쫓겨 도망치다가 이곳에 숨었다가 잡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 등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위엄동은 므르테기(물러진연디, 망대동산)와 갓므르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³⁴⁾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태흥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33)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34)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5~306쪽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225~228쪽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태흥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가 되었다.

○ 태흥1리 전설

<날개 돋은 장수무덤>

이 마을에는 어느 장수의 무덤인지 모르나 오래전부터 장수총(將帥塚) 또는 장수무덤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그 장수총은 태흥리 1579의 6번지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1,500m 올라간 진은동에 있으며 길이 2.4m, 높이 60cm의 절석(切石)으로 기단은 네모를 이루고 있다.

이 고분(古墳)은 1912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굴하였으며 무덤속에는 잘 다듬어진 석관으로 짜여진 관이 나왔고 거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인골 1구(一軀)가 보존상태가 양호한 채로 드러났다.

이 석관이 짜임새가 물방울도 스밀 여지없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짜였기에 인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외에도 고려소병(高麗燒瓶), 금속철저(金屬鐵箸 : 금속젓가락) 등이 출토되었다. 지금은 이 무덤터에 석관으로 사용했던 석관 일부만이 나뒹굴고 있다.

이 장수총 전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태흥1리 서소동 하천에는 소서물이라는 규모가 큰 소(沼)가 형성되어 있다. 그 옛날 이 소 옆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다른 아이에 비해 훨씬 골격이 크고 이미 치아에는 이가 돌아있었다.

얼핏 보아도 범상치 않은 아기였다. 하루는 엄마가 애기구덕에 아기를 눕혀놓고 물을 길러갔다가 와보니 애기구덕에 아기가 없었다.

어머니는 걱정을 하며 방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기어 다니지도 못했던 아기가 벽장위에 올라가서 놀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아버지나 다른 사람이 올려놓았겠지 하고 생각을 해버렸다.

그러고는 또다시 애기구덕에 아기를 눕혀놓고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집에 들어

와 보니 분명코 눕혀둔 아기가 방안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하여 어머니는 아기가 잠든 사이에 살짝 겨드랑이를 들쳐보니 이게 과연 어떤 일인가? 기절초풍하게도 그곳에는 날개가 돋아있었다.

그 당시는 날개 돋은 아기가 태어나면 즉시 관가에 알려야했고 관가에서는 그런 아기는 장차 역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일찌감치 유년기때 죽여 없애버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를 고민하다가 차마 자기 아들을 고자질할 수가 없어서 비밀로 하기 위하여 형겁으로 겨드랑이를 싸매고 키웠다.

그 아기가 6~7세 정도 되었을 때에는 이미 키가 8척장신으로 자랐고 힘이 장사라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폭이 40미터나 되는 소수물을 단번에 뛰어넘고 아무리 큰 거목이라도 한손으로 쑥 뽑아버렸다.

이러자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한입두입 걸쳐 모르는 이가 없도록 세상에 널리 퍼졌다.

드디어 관가에서도 이를 알고 군사를 풀어서 그 장수를 포박해오게 하였다. 그래서 관가의 군사가 출동하여 붙잡으려 왔다.

그러나 장수가 먼저 알아차리고 도망을 가는데 모세물에서 옷귀오름까지 한 발에 뛰어올라 턱 주저앉으니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만 오름정상이 폭 꺼지면서 냇이 나가고 말았다.

장수는 다시 연되동산으로 한발을 뛰니 그만 우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려 앉아버리니 이번에는 태흥리 진은수(陳隱藪)에 가서 숨어버렸다. 그렇게 장수가 난동을 부리니 잡을 도리가 없게 되자 관가에서는 장수부모를 결박 지은 후 아들(장수)을 잡아오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렇게 궁지에 몰린 그의 아버지가 체념을 하고 아들(장수)에게 독주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관가에 알리니 군사들이 즉시 들이닥쳤다. 군사들은 장수의 겨드랑이에 난 날개를 먼저 자른 후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장수를 죽여도 마음을 놓지 못하여 석관에 개관널도 석판으로 하고 봉분도 돌덩어리로 쌓았으며 그 구멍 전부 자갈로 매워 장수가 또다

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오름이 낮이 나갔다하여 낮이오름(魄梨岳, 의귀리 531번지 일대)이라 하였고 연덕동산이 무너졌다하여 무너진연덕(의귀리 1111번지 일대)라 하였다.

6. 태흥2리의 설촌유래

태흥2리는 동쪽은 태흥3리이고, 서쪽은 의귀천을 경계로 태흥1리이며, 남쪽은 바다이다. 그리고 북쪽은 의귀리 및 신흥2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옛 이름은 ‘펼개’로 불리었고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³⁵⁾, 남사일



록(南槎日錄, 1679~1680)³⁶⁾,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矚 1703)³⁷⁾,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³⁸⁾, 제주삼읍총지도(18세기중반) 등에 벌포(伐浦 : 펼개)로 표시되어 있다. 아마도 소금밭에 펼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제주삼읍전도(1872)³⁹⁾, 정의군지도(1872)⁴⁰⁾, 증보탐라지(정의현 면촌)⁴¹⁾ 등에는 보한리(保閑里)로, 정의군읍지(1899)에 동보한리(東保閑里)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이 마을에 사람들이 거주 역사를 살펴보면 태흥1리와 태흥2리간을 흐르는 의귀천하류인 해변 서쪽 경작지에서 광지식 적갈색 토기편과 석기 등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의귀천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법련사 부근일대의 경작지에서도 광지식 토기편들이 확인되었다. 이는 탐라전기(AD 200~500) 때의 유물들

35) 남사록역주(상), 제주문화원, 2008, 126쪽

36) 남사일록, 제주문화원, 2001, 143쪽

37)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11쪽

3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39)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44쪽

40)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50쪽

4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로 보아지며 이에 따라 태흥2리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역사도 탐라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⁴²⁾

이 마을의 설촌은 서기 1100년경 태흥리 153번지를 비롯한 속칭 소수(沼水)물 근처인 목은가름을 중심으로 연주현씨(延州玄氏)와 군위오씨(軍威吳氏)가 들어와 살았고, 그 후에 여산송씨(礪山宋氏), 경주김씨(慶州金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진주강씨(晉州姜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마을 248번지 등명대해안에는 1439년(세종 21) 벌포(伐浦)연대를 설치하여 왜구의 내침을 감시하였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하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보한리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보한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3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19호, 남자는 35명, 여자는 58명이다.(保閑里 自官門西距二十三里 民戶十九 男三十五 女五十八)⁴³⁾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中面) 동보한리가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동보한리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동보한의 연가는 53호이다. 남자 116명과 여자 108명을 합하여 224명이고, 초가는 89칸이다.(東保煙家五十三戶 男一百十六口 女一百八口 舍二百二十四口 草家八十九間)⁴⁴⁾라고 하였다.

42)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53쪽

43)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44)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4쪽

1902년(광무 6)에는 전라남도 보성출신인 이기원(李基元)과 이 마을 김계형(金桂滢)이 의논하여 태흥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서 태흥2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태흥리가 되었다.

원래 태흥리는 1구와 2구로 분리되었으나 1952년 8월 25일 태흥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취락이 확대됨에 따라 1955년 9월 30일 1리·2리·3리로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1월 25일 다시 통합되었다가 동년 8월 1일 1리·2리·3리로 재차 나누어졌으니 여러 번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였다.

현재 태흥2리는 뒷못동(後池洞), 조치명동(朝雉鳴洞), 금성동(金城洞), 무도동(武道洞), 가시승물동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뒷못동은 태흥리 588-1번지 일대 태흥초등학교 동북쪽 500미터지점이며, 이곳에 165㎡에 이르는 연못이 있어 생활용수로 이용하였는데 마을의 뒤쪽에 있다하여 뒷못동이라 하였다. 이를 한자 차용표기에 따라 후지동(後池洞)이라고도 한다. 조치명동은 태흥리 372-2번지 일대이며 아침이면 이곳에 꿩들이 모여들어 아침을 알려주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성동은 태흥리 921-4번지 일대이며, 동산이 마치 성(城)처럼 생겨 성을 두른 동네라 하여 금성동이라 하였다. 무도동은 태흥리 1011-1번지 일대이며 무사들이 모여 무예를 연마하는 도장으로 이용했던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시승물동은 태흥리 571-1번지 일대 동쪽 4거리이며, 이곳에 커다란 우물이 있었는데 이를 가시승물이라 하였고 이곳에 형성된 동네를 가시승물동이라 하였다.⁴⁵⁾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태흥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45)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09쪽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230~233쪽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태홍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홍2리가 되었다.

7. 태홍3리의 설촌유래

태홍3리는 동쪽은 신흥1리이고, 서쪽은 태홍2리이며, 남쪽은 바다이다. 그리고 북쪽은 신흥2리와 접하고 있다.

태홍3리는 신흥천 서쪽으로 500m정도 떨어진 해안가(태홍리 8번지 일대)에 탐라전기 (AD 200 ~ 500) 때인



곽지리식 토기편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태홍3리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역사도 탐라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⁴⁶⁾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 관하에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보한리(保閑里)가 되었다.

이 마을의 설촌은 1500년경 110번지 부근 안지왓집터에 안씨(安氏), 강씨, 장씨(張氏)가 살았다고 전한다. 그후 1796년경 8번지 부근에 현영주, 김석봉, 양천년,

4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53쪽

정씨, 강씨가 살면서 인가가 형성되었으며 그곳 지명을 산변포(産邊浦)라 칭하였다. 1860년경 36번지 일대에 오영화(吳永化), 김일방(金日邦), 고종문(高鍾文), 오영지(吳永智), 송정우(宋禎祐), 고종진(高宗珍) 월평의 강장의, 고사장 등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덕돌포(德疔浦)라 칭하였고, 중면 보한리에 속하였다. 그후 1915년경 삼석동(189~200번지 일대)에도 홍(洪), 강, 오(吳), 현(玄), 김(金), 양(梁), 고씨(高氏)와 현주사(玄主事) 그리고 165번지에 의귀리에 살던 김희은이 입주하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보한리라 칭하였다. 1902년(광무 2)에 보한리를 태흥리로 개칭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태흥리가 되었으며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서 태흥3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1년에는 삼석동(三石洞), 덕돌포(德疔浦), 산변포(産邊浦)를 합하여 삼덕동(三德洞)이라 칭하였다. 삼덕동이라 함은 1931년 현여경과 오두익이 삼석동과 덕돌포 그리고 산변포를 일괄하여 삼(三)와 덕돌포의 덕(德)자를 따서 삼덕동이라 하였다. 그중 삼석동은 태흥리 189~200번지 일대 입석천부근에 큰돌 3개가 세워졌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돌포는 현재 태흥3리 62~1, 62~6번지선 포구부근이며, 1860년에 유학사 오영화, 유향별감 김일방, 고종문, 오영지, 송정우, 고종진, 월평의 강장의, 고사장 등이 들어와 살면서 포구이름을 덕돌포 또는 덕독개라 칭하였다. 산변포는 태흥리 8번지선 바닷가로서 1796년경 이 부근에 현영주, 김석봉, 양천년, 정씨, 강씨 등이 이주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면서 자연포구이므로 산변포 또는 노린할매개라 하였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태흥리가 되었다.

원래 태흥리는 1925년 1구와 2구로 분리하여 삼덕동은 2구에 속하였으나 1952년 8월 25일 태흥리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취락이 확대됨에 따라 1955년 9월 30일 1리·2리·3리로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1월 25일 다시 통합되었다가 동년 8월 1일 1리·2리·3리로 재차 나누어졌으니 여러 번 분리와 통합을 거듭하였다. 현재 태흥3리는 삼덕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태흥3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태흥3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3리가 설치되었다.

8. 의귀리의 설촌유래

의귀리는 동쪽은 신흥2리이고, 서쪽은 한남리와 남원2리이다. 그리고 남쪽은 남원1리, 태흥1리, 태흥2리이고, 북쪽은 수망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옛 이름은 옷귀 또는 옥귀라 하였고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에 오이리(五耳里), 탐라도(耽



羅圖, 17세기말)에 의귀촌(衣貴村),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曠, 1703)에 의귀(衣貴),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정의현 면촌)에 동서의귀(東西衣貴), 호구총수(戶口總數 호촌면 1789)에 동의귀리(東衣貴里), 서의귀리(西衣貴里), 탐라지초본(耽羅誌草本, 18세기중반)에 의귀(義貴),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61) 및 동여도(東輿圖, 1800년대 후반)에 의귀촌(衣貴村), 제주삼읍전도(1872) 및 정의군지도(1872) 등에 의귀리(衣貴里), 동의귀리(東衣貴里), 서의귀리(西衣貴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동의리(東衣里), 서의리(西衣里)로 표시되어 있다.⁴⁷⁾

이 마을에 사람들의 거주역사를 살펴보면 2003년 5월 남원~의귀간 남조로확장공사시 냇이오름 북동쪽 유물산포지에서 삼양동식 절갈색 토기편과 석재편이 수습되었다.⁴⁸⁾ 이는 탐라초기(BC200~AD200) 때의 신석기유물들로 보아지며 그에

47)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9쪽
 제주의 옛지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4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45쪽

따라 의귀리 지역에 사람들의 거주역사도 탐라초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마을의 설촌은 지금으로 부터 450여 년 전에 경주김씨(慶州金氏)가 먼저 들어왔고, 그 후에 제주고씨(濟州高氏), 제주양씨(濟州梁氏), 군위오씨(軍威吳氏), 광산김씨(光山金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 관하에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지경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兪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이 마을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이 마을출신인 김만일(金萬鎰)은 무과에 급제하여 1582년(선조 15) 순천부에 소재한 방답진(防踏鎭) 첨절절제사(僉節制使)가 되었다. 그는 좋은 말 1,300여필을 조정에 헌납하여 종1품인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제수되어 ‘헌마공신’이 되었고, 후손들도 감목관직을 대대로 세습하였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동의귀리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동의귀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8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47호, 남자는 175명, 여자는 198명이다.(東衣貴里自官門西距二十八里 民戶四十七 男一百七十五 女一百九十八)⁴⁹⁾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동의귀리가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동의리가 되었다. 이때 동의리는 서중면의 치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 동의리의 연가는 110호이다. 남자 258명과 여자 266명을 합하여 524명이고, 초가는 305칸이다.(東衣 煙家一百十戶 男二百五十八口 女二百六十六口 合五百二十四口 草家三百五間)⁵⁰⁾라고 하였다.

4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40쪽

5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40쪽

1910년 8월 29일부터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동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비공직 신분으로 유지되었던 면장을 관입관대우 국가관리로 보직시켰다. 따라서 면장은 군수(1915년부터 島司)의 보조기관으로써 독립된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관장케 되었다. 이에 따라 1912년 서중면사무소는 의귀리 1495번지에 개소하였다.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수망리와 동의리 일부를 통합하여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의귀리라 하였다. 그때 동의리 일부는 신흥리에, 서의리는 남원리에 각각 통합되었다. 당시는 의귀리가 마을중심에 면사무소가 소재하였고, 그 부근인 현재 중앙동의 버스정류소 네거리에서 제2의귀교(개터물)까지 거리에는 5일장이 열렸다. 이 장에는 주변에 주민들은 물론 육지상인들도 몰려들어 초석, 짚신, 버섯, 잡화를 비롯한 생필품 등을 판매하여 가히 저잣거리를 방불케 하였다. 그래서 이곳을 장터 또는 장판거리라 불렀다. 더불어 1914년부터 토지세부측량이 시행되자 이에 따른 토지조사요원과 측량기수 등이 체재하기 시작하였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의귀리가 되었고, 1922년부터 조선후적령이 공포되자 호적등재를 위해 관련주민들이 뺏질나게 면사무소를 왕래하였다. 더불어 1923년에는 제주경찰관 주재소가 의귀리 1532번지 전 향사자리에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순사부장이하 3명이 순사가 배치되었고, 형사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주재소를 드나들게 되었다. 이러자 자연히 의귀리는 많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었고 명실상부한 면의 중심지가 되어 마을은 번성하였다. 그러나 그 호황도 한때였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일주도로가 뚫리면서 도전역이 일주도로 위주로 교통체제가 개편되었다. 따라서 일주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의귀리 등을 통하여 동서로 연결된 간선도로의 기능은 점차 상실되고 신작로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925년 4월 5일 제주경찰서 경찰관주재소를 남원리 1243번지로 이설하였다. 더불어 1926년 3월 20일 면사무소도 신작로변인 남원리 205-1번지로 이전하였다. 그래서 의귀리 5일장도 자동 소멸되었고, 마을의 번영도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

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의귀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8년 43사건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은 해안마을로 소개했다가 1949년 7월 다시 올라와 마을을 재건하였다.

현재 의귀리에는 중앙동(中央洞), 월산동(月山洞), 산하동(山下洞)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있다. 중앙동은 의귀리 중심부에 있는 마을이다. 월산동은 중앙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동산에 올라 떠오르는 달을 쳐다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하동은 뉘시오름(醜梨岳) 바로 동쪽에 형성된 마을로 뉘시오름 발치에 자리잡은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⁵¹⁾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의귀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의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가 되었다.

○ 제주마의 본고장 의귀리

의귀리는 중산간지대에 위치하여 1276년(충렬왕 2) 원의 목마장을 설치한데 이어 조선조 때에는 제10소장관할에 들어가 있었다.

16세기말 한라산 동남부 일대의 사마(私馬)목장 (후에 山馬場)은 어느 국마목장보다 번창하였으니 이는 의귀리출신 김만일(金萬鎰)의 공이다.

김만일은 본관이 경주이며 1550년(명종 5) 7월 14일에 정의현 옷귀(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서 어모장군이홍(禦侮將軍利弘 : 후에 資憲大夫工曹判書추증)의 아들로 태어났고, 1632년(인조 10) 10월 27일 별세하였다.

그는 어릴때부터 두뇌가 명석하고 도량이 넓어서 인격적으로 출중한 면모가 엿보였다. 일찍 무과에 급제하여 1582년(선조 15)경 순천부방답진(順天府防踏鎭) 첨절제사(僉節制使)를 제수받았다.

51)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25~329쪽

그는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의귀리에 돌아와 앞으로 말의 필요성을 예견하였고 의귀리에서 교래리까지 목장을 설치하여 마축의 개량과 번식에 힘썼다. 그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은 삼시에 증식되어 가히 1만여필을 사양하게 되었고 또한 가문도 날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차에 국가에서는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선조 31)까지 임진왜란을 당하여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국력은 피폐하여 민생은 험벗고 기아에 허덕였다. 이에 따라 전장에서 무수한 전마(戰馬)가 죽어갔고 수축(獸畜)은 굶주린 백성들에 의하여 도살되어 말의 사육두수는 현격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군사용으로 쓰는 전마, 민간에서 일을 시키던 역마(役馬)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런 고난의 시국을 맞아 김만일은 가만히 좌시만 하는 것은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거룩한 우국충정을 발휘하여 국가에 말을 헌납하기 시작하였다.

- 1594년(선조 27)에 사목장(私牧場)에서 사육하는 양마(良馬) 500필을 전마(戰馬)용으로 나라에 헌납하였다.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김만일의 공로가 가상함을 들어 국영목장 10소장내에 동별목장(東別牧場)과 서별목장을 설치 관리토록 하였다.
- 1620년(광해군 12)에 또다시 전마 500필을 헌납하자 광해군은 김만일을 친히 불러 그의 공을 치하하면서 헌마공신(獻馬功臣)의 호와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總府副總管, 종2품)직을 제수하고 그의 장자 대명(大鳴 1605년 무과급제)을 보성군수(寶城郡守), 차자 대성(大聲)은 당상관(堂上官), 손자 려(礪)에게는 본도의 변장(邊將)을 제수하였다.
- 1627년(인조 5)에 또 다시 전마 400~500필을 헌마하자 조정에서는 1628년(인조 6)에 그에게 승정대부(崇政大夫 종1품)에 서직(叙職)하였다. 뿐만 아니라 3대를 추증하여 참의(參議), 참판(參判), 판서(判書)를 증직하였으니

가문에 일대 영광이었다.

- 1658년(효종 9)에 김만일의 3남 대길(大吉)과 손자 반(磻)이 또 다시 전마 208필을 나라에 헌납하였다. 이때 효종은 제주목사 이회(李檜)의 건의를 받아들여 동서별목장을 산장(山場)으로 만들어 말을 사양케 하였다. 그리고 김만일의 3남 대길(大吉)을 제1대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에 임명하였다. 이 산마감목관직은 대대로 세습되어 내려오다가 1892년(고종 29)에 그 직제가 폐지되었다.

위귀리는 이처럼 말사육을 통해 나라에 공헌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룬 마을이요, 전도 목장가운데서 가장 번창하였던 산마장 중심마을이었다.

이래서 2008년 4월 25일 의귀리민 일동이 '제주마의 본향의귀리'라는 비를 세웠다.⁵²⁾

○ 의귀리 전설

<의귀리 설촌과 호종단>

호종단(胡宗坦)은 중국 송나라때 복주(福州)태생으로 태학(太學)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다가 절강성을 거쳐 상선을 타고 고려에 귀화하였다.

고려예종은 그를 후대하여 좌우위록사(左右衛錄事)에 보직하였다가 권직한림원(權直翰林院)을 거쳐 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를 제수(除授)하였다.

그는 풍수지리와 잡예(雜藝)에도 능하였다.

당시 제주의 혈(穴)에서는 쇠 새 없이 인걸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주에서 인걸이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호종단을 불러 제주의 물혈을 끊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 들어와 각 처로 돌아다니며 정혈(正穴)에다 쇠꼬챙이를 콧

52) 장덕지 목마장과 남제주, 남제주문화 제2호, 2005, 82쪽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1982, 59~60쪽

오기찬 현마공신 김만일공의 생애와 업적 및 평가, 2006, 남제주문화원 지방문화세미나, 7~11쪽

제주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2007, 117~118쪽

쿱 찢러 넣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대혈(大穴)중의 하나인 수망리경 민오름앞 반데기왓(수망리 산19번지)의 정통(正統)과 입도맥(入道脈)에 압침(壓針)을 하고는 바닷가로 이어진 맥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수망리에 사는 경주김씨 청년 한 분이 선친이 별세하자 상복차림으로 버섯을 따려고 반데기왓 숲으로 들어가 목이(木耳)버섯이 있나 없나 두루 살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굵은 철침이 땅에 깊숙이 꽂혀있는 게 보여 무심코 뽑아버렸다. 이때 대혈을 누르면서 내려가던 호종단은 전혀 맥이 죽지 않고 있음을 이상케 여겼다.

그래서 반데기왓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압침은 뽑혀있고 상복차림을 한 청년이 목이버섯을 따고 있었다.

그는 다짜고짜 이곳에 꼽은 침을 뽑았느냐고 묻자 그 청년은 아무리 말 못하는 땅이지만 생땅에 침을 꽂아 놓은 게 좋아 보이지 않아 뽑았노라고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호종단은 그 청년의 관상을 살펴보니 천복을 타고 난 상이며 압침을 무심코 뽑아버린 것이 바로 하늘의 뜻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호종단은 그곳에 선친의 묘를 쓰라고 했다. 그러면 발복을 하여 자손이 번창하고 부자로 살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호종단은 그 청년에게 발에 힘을 주어 지맥을 단단히 밟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 청년은 시키는대로 땅을 밟고 있으려니 발바닥이 너무 뜨겁고 진동이 심하여 그만 발을 조금 움직이고 말았다.

바로 그때 그 밟았던 땅속에서 청비둘기 한쌍이 푸드득하고 솟구쳐 한 마리는 서쪽으로 날아가고, 한 마리는 남쪽으로 날아갔다. 아니~ 이럴수가 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려니 얼마 후에 호종단이 되돌아 비둘기가 날아가 버린 것을 알고는 “그렇게 단단히 타일렀으나 발을 움직이다니!”하고 한탄을 하다가 “그래도 이 자리에 묘를 쓰시오. 1백년 후에는 맥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올 것이니 발복이 조금 늦어질 뿐이요.”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남으로 내려와 청비둘기가 내려앉은 곳을 정해주며 “이곳에 집을 지어 살되 산나무를 그대로 기둥삼아 집을 지으라.”고 당부하였다.

김씨 청년은 그 말에 따라 선친의 묘를 그곳에 썼다.

그리고 호종단이 가르쳐준 의귀리 땅에 산나무를 기둥으로 삼아 초가집을 지었다. 그러자마자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니 농작물이 잘 자라 대풍을 맞았다.

그래서 가세가 날로 부유해져 1백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자 그 현손(玄孫)이 성장하여 장가를 들었다.

당시 처가는 말을 수백필이나 보유한 부농이었다. 처가는 그런 부잣집이었지만 밭이나 집을 물려주지 않고 겨우 웅마(雄馬) 한 마리를 물려주었다.

그 사위는 이 말을 받아다가 목장에 놓아먹이는데 하루는 이 말이 어디로인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말을 찾으러 산야를 뒤지다가 다시 그 목장엘 가보았다. 그런데 이외에도 이 웅마가 1백여마라의 자마(雌馬 암말)을 거느리고 의젓하게 풀을 뜯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말은 전부 처갓집 것이었다.

사위는 곧 처가에 찾아가 말떼를 몰아가도록 하자 처가댁에서는 즉시 목장에 가서 말떼를 몰아왔다. 그런데 어느 날 처가댁 말들은 다시 사위가 기르는 웅마가 있는 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이렇게 몰아가면 말들은 스스로 사위의 웅마를 따라오고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처가에서도 지쳐버렸는지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하고 그 말떼를 전부 사위에게 주어버렸다. 그러자 사위는 일약 부자가 되었고 말은 계속 번식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불어 1만여필이 말을 사육하게 되었다. 바로 이 사위되는 분이 김만일(金萬鎰)이었고, 후에 조정에 말을 진상하여 헌마공신이 되었다.

그의 3남 대길(大吉)은 산마감독관(山馬監督官)이 되었고, 이 직은 1892년(고종 29) 폐지될 때까지 12대에 걸쳐 83명 자손이 세습하였다.

그리고 그 일족들이 도내에 많이 번성하여 큰 씨족으로 성장하였다.⁵³⁾

53)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27~328쪽

제주도전설지, 제주도, 1985, 374~377쪽, 장덕지 제주마이야기, 제주문화, 2007, 341쪽

9. 수망리의 설촌유래

수망리는 동쪽은 신흥2리이고, 서쪽은 한남리이며, 남쪽은 의귀리이다. 그리고 북쪽은 목장지대를 지나 교래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옛 이름을 ‘물우라’, ‘무라’라 하였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정의현 산천, 1530)



에 수망(水望),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 제주삼읍총지도(濟州三邑摠地圖, 18세기중반),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경) 등에 수망촌(水望村),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정의현 면촌), 정의군읍지(旌義邑誌, 1899년) 등에는 수망리(水望里)로 표시되어 있다. 탐라지도(1709), 제주삼읍전도(1872) 정의군지도(1872) 등에 수망악(水望岳 : 물우라오름)이라 표기한 오름이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물영아리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는 수망리에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⁵⁴⁾

이 마을의 설촌은 550여전 전에 경주김씨(慶州金氏)가 속칭 ‘돛박낭밭’ 일대에 터전을 잡은 후 점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

54)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쪽

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수망리(水望里)가 되었다. 18세기 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수망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5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31호, 남자는 103명, 여자는 100명이다.(水望里自官門西距二十五里 民戶三十一戶 男一百三 女一百)⁵⁵⁾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수망리(水望里)가 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수망리(水望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 수망의 연가는 39호이다. 남자 86명과 여자 80명을 합하여 166명이고, 초가는 63칸이다.(水望 煙家三十九戶 男八十六口 女八十口 合一百六十六口 草家六十三間)라고 하였다.⁵⁶⁾

수망리는 20세기 초반에 동수망(東水望)과 수망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으나 1912년의 「구한국 행정구역 명칭일람」에 수망리만 나타남으로 동수망과 수망은 1905년경 병합된 것으로 보인다.⁵⁷⁾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그때 동중면의 안좌리(安坐里) 일부를 통합한 후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수망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수망리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수망리가 되었다. 한때 이 마을은 앞동산동네[前童山洞], 장고못동네[長鼓洞], 따비튼물동네 등 자연 마을이 있었다. 그러나 1948년 43사건 때 큰 피해를 당하여 한때 폐동까지 되었고 1950년 봄에 재건되어 현재는 향사동(鄉舍洞) 일대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55)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쪽

56)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쪽

57)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337쪽

자연마을 역시 향사동 1개로 이루어졌다.

앞동산동네는 오늘의 수망리 301~2번지 일대이며 향사동으로 개칭되었다. 장고 못동네는 수망리 산164번지 일대인 민오름 뒤에 형성된 동네였다. 물이 오래 고 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약 110여년전 이 연못주변에 고씨, 조씨 등 6~7가구가 작은 화전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나 43사건시 폐동되었다. 따비튼물동네는 수망리 200번지 일대 수영약 북쪽 1.5km지점에 형성된 동네였다. 널따란 평지에 990m²에 이르는 넓은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여 화전민 40여 가구가 모여들어 축산을 하고 콩과 팥 등 밭작물을 파종하며 살았으나 4·3사건시 폐동되었다.⁵⁸⁾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수망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수망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가 되었다.

○ 수망리 전설

<물영아리>

수망리에서 북쪽으로 6km 정도를 올라가면 수망리 산189번지에 표고 508m의 물영아리(水靈岳)라는 야산이 있다.

수망리에 사람들이 들어와 설촌한 직후에 일이다. 어느 가정에서 소를 방목하였는데 그 소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되는 젊은이가 소를 찾아 들판을 헤매었으나 소를 찾을 수

5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6~337쪽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17~321쪽

가 없자 드디어는 물영아리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도 소는 보이지를 않자 젊은이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기진 맥진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던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여보게 젊은이 너무 상심하지 말게, 내가 자네의 소 값으로 이곳에 큰 연못을 만들어 놓겠네. 그러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소들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 오면 소를 반드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네. 그러니 자네는 다시 소를 한 마리 사서 사육하면 살림이 윤택해질 것이네!”하고는 사라졌다.

그 즉시 청년은 눈을 뜨게 되었고 사방을 바라보니 이미 석양이 뉘엿뉘엿 비치고 있었는데 어느새 먹구름이 삽시에 덮여지고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젊은이는 비를 맞는데도 옷은 전혀 젖지를 않으니 이상한 일이었다.

그제야 젊은이는 종전에 꿈속에 나타났던 백발노인이 하던 말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바로 그때 ‘우르릉~ 팡’하는 천둥소리가 하늘을 두 쪽 나게 만드느라 싶더니 번갯불이 번쩍 비추자 젊은이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그 폭우는 어느새 그쳤고 동쪽하늘에 해가 솟아오르려할 즈음에 젊은이가 깨어나 앞을 바라보니 오름정상 봉우리는 간 데가 없고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호수가 이루어졌다.

젊은이는 이 천지개벽할 사태에 눈이 휘둥그레지다가 한 걸음에 마을로 달려가 동네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그런 후 그 젊은이는 암만해도 예삿일이 아니므로 백발노인이 하던 말을 명심하여 소를 사서 부지런히 사육하였더니 점점 부자가 되었다. 그런 후 오름정상에 물이 여물게 가득 찼다는 뜻에서 ‘물영아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 부근일대에 방목하는 소들은 목이 마르면 으레 이 물을 마시러 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일대 축산업이 날로 번성하게 되었다.

10. 한남리의 설촌유래

한남리는 동쪽은 수망리와 의귀리이고, 서쪽은 위미리이며, 남쪽은 남원 2리이다. 북쪽은 목장지대를 지내 교래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옛이름을 부등개라 불리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8, 정의현 산천, 1530)에 화등지(火等枝 부등개), 탐라도(耽羅圖 17세기 말)에 부등천촌(夫水⁵⁹)川村 부등개내마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壯囑, 1703)에 부등(夫水 부등개), 제주지도(濟州地圖, 1700년대 전반)에 화등촌(火等村 부등개마을),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경)에 화등촌(火水村 부등개마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년),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년), 정의군읍지(旌義邑誌, 1899년)에 한남리로 표시되어 있다.⁶⁰⁾

한편 이 마을에 사람들의 거주 역사를 살펴보면 한남리 1063-1번지 서중천변에서 신석기시대 후기-만기(滿期)에 해당되는 점렬문(點列文)계 토기와, 이중구연(二重口緣)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는 기원전 2,000년경에 사용했던 것으로 아득한 옛날에 한

59) 등(水)은 이두에 많이 쓰이는 글자이며 등(等)의 축약형이다.

6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63-332쪽

내고향 한남리, 한남리 향토지편찬위원회, 2007, 38~48쪽

남리부근에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⁶¹⁾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마을에 입촌 씨족들을 살펴보면 처음 입촌은 1550년(명종 5)경 허씨(許氏)성을 가진 분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였다고 전한다. 그 다음은 한양조씨(漢陽趙氏)가 들어와 살았다. 이 한양조씨는 부자로 살았지만 무남독녀였다. 그래서 신천리에 살던 연주현씨(延州玄氏) 득호(得浩)가 조씨댁 사위로 들어와 살았다. 그 후 1735년(영조 11)경에 군위오씨(軍威吳氏) 경창(景昌)이 한남리 현태수(玄泰岫)의 사위가 되어 한남리에 들어왔다. 또한 제주고씨 일침(日瞻)이 서흥리에 살다가 모친 현씨를 따라 이 마을에 들어왔다. 다음 남평문씨(南平文氏) 태종(泰宗)이 하효리에 살다가 이 마을로 이거하였다. 그후 여산송씨(礪山宋氏) 상언(祥彦)이 붉은오름과 민오름 등지에서 축산을 하다가 1900년(광무 4)경에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 이외에도 장씨(張氏), 최씨(崔氏), 김씨(金氏) 등이 점차 이 마을에 입주하게 되었다.⁶²⁾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화등리(火等里)가 되었다. 18세기 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화등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23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36호, 남자는 90명, 여자는 119명이다.(火等里自官門西距二十三里 民戶三十六 男九十 女一百十九)⁶³⁾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화등리(火等里)가 되었다. 19세기 중반에 화등리는 한라산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6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38쪽

62) 내고향 한남리, 한남리 향토지편찬위원회, 2007, 57~61쪽

63)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33쪽

뜻인 한남리(漢南里)로 바뀌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한남리가 되었다. 이때부터 화등천(火水川·火等川) 또는 부등천(不水川·不等川) 등으로 불리던 하천명칭도 서중면이 되면서 서중천(西中川)으로 변경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한남의 연가는 110호이다. 남자 234명과 여자 228명을 합하여 462명이고, 초가는 220칸이다.(漢南 煙家一百十戶 男二百三十四口 女二百二十八口 合四百六十二口 草家二百二十間)라고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폐합시 한남리에 의귀리 일부를 통합시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한남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한남리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에는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한남리가 되었다. 그후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하였고 생존자는 해안마을이나 의귀리 등에 흩어져 살다가 4년 7개월이 경과된 1953년 7월 1일에야 마을이 재건되었다.

현재 이 마을은 대전동(大田洞) 1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한때 이 마을은 고나물동네, 머채왓동네, 빌레가름 등 자연마을이 있었다. 고나물동네는 한남리 북쪽 한남천변에 형성되었고, 이 하천에 고나물이라는 깊은 소(沼)가 있어 식수와 가축급수용으로 쓰였다. 그렇게 동네를 이루고 살아오다가 43사건시 폐동되었다. 머채왓동네는 한남리 산76번지 일대였고 현재 공동목장으로 쓰고 있다. 이 지역에 돌무더기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며, 머채는 돌무더기가 많은 밭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화전농을 하는 주민들이 몇가구 모여 동네를 이루고 살았으나 43사건시 폐동되었다. 빌레가름은 지표면 바로 밑에 암반이 널려 있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며 24가호 130여명 주민들이 고씨집성촌을 형성하고 살았으나 43사건시 폐동되었다.⁶⁴⁾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한남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한남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가 되었다.

○ 열녀정씨비에 대한 고찰

열녀정씨비가 남원읍 남원2리와 한남리 경계선도로 북쪽편 한남리 4번지에 세워져 있었다. 비석이 세워졌던 곳이 한남리이므로 한남리편에 열녀정씨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첨부키로 하겠다.

이 내용을 소개하는 목적은 열녀정씨가 살았던 시대에 의귀리, 남원2리, 한남리 일원에 목양관리를 위한 목호들과 축산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주인들이 함께 정착하였을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분히 마을의 정주역사와도 연관성을 갖는다.

1273년(원종 14) 여몽연합군이 삼별초를 격파하자 원은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아 목마장을 설치하였다. 1276년(충렬왕 2) 원은 본국의 말을 갖고와 수산평(水山平)에 풀어 넣고 몽골식 목마장을 설치하였다.

이때 남원읍의 중산간일원에는 천연적으로 넓은 초원지대가 펼쳐져 목장으로 각광을 받았다.

이에 따라 1300년(충렬왕 26)에는 마필이 크게 증가하고 사육시설과 운영요원이 확대되었다. 이래서 몽골양목인인 목호(牧胡)들이 중산간 일대인 의귀(동서웃귀)와 한남등지에도 많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목호들은 천성이 강포(強暴)하고 호전적이라 고려의 관민을 살해하고 백성

64)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02~308쪽

들을 노비로 부리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고려조정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사실 탐라는 고려의 영토이면서도 목호 때문에 정령(政令)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되고 있었다.

그러다 1367년(공민왕 16) 원이 망한 후에도 목호세력인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초고독불화(肖古禿不花), 관음보(觀音保) 등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를 합적(哈赤 : 목호)의 난이라 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1374년(공민왕 23) 최영(崔瑩)을 양광(楊廣), 전라(全羅), 경상(慶尙)도 등 3도의 도통사(都統使)에 임명하고 전함 314척과 군사 25,605명의 대군을 인솔하고 제주목호를 정벌하기에 이르렀다.

이 난에 석곡리보개(石谷里甫介, 탐라지에는 石邦里甫介)가 죽었다. 그의 부인 정씨(鄭氏)는 자식이 없고 미모가 뛰어났다. 이 정씨를 탐낸 안무사의 군관들이 유혹했지만 정씨는 끝내 듣지 않고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열렬한 그의 정절이 조정에 전해지자 정려(旌閭)되었고, 1834년(순조 34) 3월에 목사 한응호(韓應浩)가 고쳐 세웠다. 이 비는 만인에게 정표하기 위해 도로변에 세웠는데 이로 인하여 지명을 정비(鄭碑)못이라 하였다.

이 비는 정면에는 烈婦鄭氏之碑라 횡서로 쓰여 있고, 그 아래 해설문이 종서로 적혀있다.

高麗石谷里甫介之妻 哈赤之亂其夫死

고려 석곡리 보개의 처가 합적의 난에 그의 남편을 잃었다.

鄭年少無子有姿色 按撫使軍官強慾娶之

정씨가 나이가 젊은데다 아들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안무사의 군관이 억지로 아내를 삼으려하였다.

鄭以死自誓引刀 慾自勿竟不得娶至老不嫁事

정씨는 죽기를 맹세하고 칼을 당겨 찌르려함으로 끝까지 그의 뜻을 빼앗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늙도록 개가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 비석 후면에는 종서로 이렇게 쓰여 있다.

到處見聞 가는 곳마다 보고 들으니
 莫非其惠 그 은혜 아님이 없네.
 重修古跡 고적을 중수해서
 且矜無后 후없는 이를 불쌍히 여겼다.
 特下後根 특별히 훗날에 그 근본을 드리워
 改造石碑 돌비석을 새로 고쳤다.
 牧使 韓公 (韓應浩목사를 일컬음)
 道光十四年三月 일 [1834년(순조 34) 3월]

이 비는 남원읍 남원2리와 한남리 경계도로 북쪽편인 한남리 4번지 감골과수원에 세워져 있었으나 2008년 9월 시점에는 한남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비신의 높이는 58cm, 너비는 30cm, 두께는 10cm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비석으로 글씨는 선명하게 보인다.⁶⁵⁾

○ 한남리 전설

<한남리 설촌자인 허씨와 당>

한남리 마을을 설촌한 허씨는 정승벼슬을 지냈는데 같은 허씨인 하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65) 탐라지(정의현조 인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359쪽
 남제주 문화유산, 남제주문화원, 2006, 325쪽
 정의군지, 남제주문화원, 2005, 251~252쪽
 남제주 문화유적, 남제주문화원, 2007, 249~250쪽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63~164쪽
 제주사 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302쪽

그는 부인과 아들 일곱 형제와 더불어 단란하게 살아가다가 하루는 그는 부인과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대정땅 물 막은 섬인 마라도로 귀양을 보내버렸다.

그런 후 허씨는 다시 부인을 얻었는데 그 작은 부인이 큰 부인과 자식을 왜 귀양 보냈느냐고 하면서 데려다 함께 살자고 자꾸 정승에게 졸랐다.

허정승은 하는 수 없이 이를 허락하니 작은 부인은 배를 빌어 마라도에 가서 큰 부인을 만나 모시러 온 경위를 설명하고 함께 한남리 땅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자 큰 부인과 아들들도 절해고도에서 고생을 많이 하던 때라 기꺼이 작은 부인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하여 배를 타고 물에 이르자 작은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일곱 형제를 업고, 안고, 걷게 하면서 먼저 집으로 갈 터이니 형님은 바다에 익숙하니까 바닷을 잡고(해산물을 채취) 뒤따라오시오.”라고 하였다.

사실 한남리 땅은 중산간지역이라 해산물을 먹어보기가 어려운 고장이라 큰 부인은 이를 수궁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여 큰 부인은 해변에서 열심히 바닷을 잡고 집에 도착해보니 막내가 보이지 않았다. 큰 부인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작은 부인이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귀찮아 내버리고 왔다고 생각하고는 막내를 찾아 나섰다.

그런데 그 막내아들은 작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길을 가다가 그만 소르르하게 살짝 길가에 빠지고 말았다.

작은 어머니와 형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리운 고향으로 부지런히 걸어 나갔다. 그러자 막내는 길을 잃고 이곳저곳 헤매다가 가시에 눈이 찢려 그만 봉사가 되고 말았다. 그는 길을 잃고 돌아다녔다.

큰 부인은 무작정 막내를 찾아 돌아다니다보니 힘도 들었고 갈증이 몹시 일어났다.

그때 멧돼지가 지나간 발자국에 물이 고여 있는 게 눈에 띄어 그 물을 빨아먹었다. 그러자 입에서 돼지똥과 오줌냄새가 몹시 일어나 몸에서 악취가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주변을 뒤졌더니 봉사가 된 막내를 다

행히 찾을 수가 있었다.

그 연락을 받은 큰 부인이 구역질나는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오자 정승은 더럽다고 크게 화를 내며 큰 부인을 내쫓아버리니 할 수 없이 이곳 당밭에 살았다.

그 이후 큰 부인은 살아생전에 두 번 다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지내다 이곳 당신(堂神)이 되었다. 이 때문에 지금도 당밭에 치성을 드리러 갈 사람은 하루 전부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후 당은 고분당⁶⁶으로 옮겼고, 또 다시 당밭머리 큰 폭낭알로 옮겨 지금에 이르고 있다.⁶⁶⁾

<한남리 빌레가름 설촌>

빌레가름은 한남리 마을 북쪽 1km 지점에 위치하고 서중천 동쪽 동산 위에 펼쳐진 넓은 들판이다. 이곳은 원래 ‘섯흙밭’이라고 불렸다.

이곳 동네는 원형인데 가운데가 남북으로 돌빌레가 뻗혀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빌레가름’이다.

마을중심의 돌빌레는 길이 되었고, 길 동쪽에 주로 고씨가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다가 점차로 길 서쪽에도 거주하기 시작하여 30여 호를 이루었다.

제주고씨 영곡공 17세손 도훈장 제룡(濟龍)은 선조 대대로 90여년 동안 동집터에서 터전을 닦아오다가 유명한 풍수가 ‘정 당장’이 빌레가름에 새 터전을 자리 잡으면 향후 100년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권고에 따라 서기 1846년 오촌당숙인 익검(益檢), 익모(益模), 익년(益年)과 함께 이곳 빌레가름으로 이주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집안은 1948년 4·3사건 때까지 103년간 많은 유립을 배출하며 풍요롭게 살아왔다. 정당장의 예언에 따라 100년을 채우지 않고 떠난 사람들은 화(禍)를 면할 수 있었지만 100년을 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은 103년째 되던 해 1948년 4·3사건을 만나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⁶⁷⁾

66) 남제주군 고유지명, 남제주군, 1996, 303~304쪽

67) 내고향 한남리, 한남리향토지 편찬위원회, 2007, 89쪽

11. 위미1리의 설촌유래

위미1리는 동쪽은 위미 2리이고, 서쪽은 종남천 넘어 신례리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신례리와 접하고 있다.

위미1리의 옛 이름은 ‘웨미’, ‘웨민개’이다.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과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



壯囑, 1703) 등에 우미포(又尾浦 : 웨민개), 우미촌(又尾村 : 웨미마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정의현, 면촌, 18세기후반)에 우미촌(又尾村 : 웨미마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 등에 우미리(又美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서위미리(西爲美里),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 1904)에 동미(東美 : 동위미), 신미(新美 : 새위미), 위미(爲美) 등으로 표시되어 있다.⁶⁸⁾

1601년(선조 34) 안무어사(按撫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쓴 남사록(南槎錄)에는 정의현의 수륙군을 열거하며 병선을 정박시킬만한 포구로 현 서쪽 30리에 우미포(又尾浦)가 있다고 적었다.

1439년(세종 21)에 위미리 2878번지에 우미연대(又尾煙臺)를 설치하여 왜구내침을 감시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위미리에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6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3~314쪽

위미1리 설촌은 1600년경에 고좌수(高座首)가 상위미 큰터왓일대에 터를 잡고 살았으며 그후 셋뚝미(말고랑터)에는 한좌수(韓座首)가 들어와 살았다. 1700년경에는 가운데썰일대에 연안김씨(延安金氏)가 들어왔다. 이어서 연안김씨의 사위가 된 제주고씨(濟州高氏)와 이때를 전후하여 군위오씨(軍威吳氏), 연주현씨(延州玄氏), 여산송씨(礪山宋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⁶⁹⁾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우미리 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116호, 남자는 341명, 여자는 439명이다.(又尾里自官門西距四十里 民戶一百十六 男三百四十一 女四百三十九)라고 하였다.⁷⁰⁾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정의군 서중면)에 새위미의 연가는 79호이다. 남자 192명과 여자 208명을 합하여 400명이고, 초가는 225칸이다.(新美 煙家七十九戶 男一百九十二口 女二百八口 合四百口 草家二百二十五間)라고 하였다. 또한 위미연가는 102호이다. 남자 238구, 여자 237구를 합하여 475구이고, 초가는 203칸이다.(爲美 煙家一百二戶 男二百三十八口 女二百三十七口 合四百七十五口 草家二百三間)⁷¹⁾

69)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72·313쪽

위미리지, 위미신용협동조합, 1991, 55쪽

70)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3쪽

7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3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미리(爲美里)는 19세기말에 이르러 동위미(東爲美)와 서위미(西爲美)로 나뉘었다. 동위미와 서위미의 중간음인 위(爲)를 생략하여 동미(東美), 서미(西美)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또 신미(新美)가 분리되어 동미, 서미, 신미 등 3개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3개 마을은 1910년 이전에 위미(爲美)로 통합된 듯하다.⁷²⁾

그리고 마을명칭은 18세기에는 우미리(又尾里), 19세기중후반에는 우미리(又美里)로 되었다. 그러다 19세기말에 위미리(爲美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위미라는 용어는 「논어(論語)」 이인(里仁)편 제26장중 제1장에 ‘자왈이인위미(子曰里仁爲美)하니 택불처인언득지(擇不處仁焉得智)리요’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뜻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질어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리오.’라는 데서 위미라는 마을명칭을 붙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1914년 3월 1일 행정구역 폐합때 위미1리 일부(생길약지역)는 신례리에 통합되었다. 따라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⁷³⁾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으며,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위미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으며 그후 위미1리와 2리로 나누어졌다.

현재 위미1리는 서성동(西城洞), 대화1동(大和1洞), 대화2동(大和2洞), 명륜동(明倫洞), 상위미동(上爲美洞)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서성동은 위미1리 서쪽 셋벵디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고, 대화동은 위미1리 해안인 가운데씨, 조랑개, 앞개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 명륜동은 대화동 위쪽의 웃동네와 마루왓 일

72)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31쪽

73)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31쪽
학림지, 남원읍 하례2리, 1994, 49쪽

대에 형성된 동네이다. 상위미동은 웃뽕미라고도 하며 명륜동 위쪽 감낭굴(柿木洞)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

1960년 5월 1일 남원면 위미출장소가 신설되었으나 2004년 7월 1일 폐지되었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위미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위미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가 되었다.

○ 위미1리 전설

<상위미 설촌터와 고좌수>

고좌수가 400여년 전 상위미(웃뽕미) 큰터왓에 들어와 터를 잡으니 이때부터 위미리 설촌이 시작되었다. 그는 고대광실 같은 집을 짓고 드넓은 토지를 경작하며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니 위미리에서는 가장 큰 세력가였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마을사람들이 상위미 지경에 밭에 일을 가노라면 영락없이 고좌수가 불러서 자신의 집일을 시켜버렸다.

그러나 아무도 반항을 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고좌수의 일을 무상으로 하여야 했다. 그는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었고 욕심도 많았기에 다른 사람이 지닌 물건도 제 마음에 들었다하면 억지를 써서라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차차 고좌수의 방자한 행동과 많은 재력이 정의현에 알려졌다. 바로 고좌수의 집에 가면 없는 게 없다고 하는 말이 돌아다녔다.

이런 소문을 들은 현감은 고좌수에게 망신을 주려고 궁리를 하다가 하루는 고좌수에게 “너희 집에 탕건 100개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좌수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느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 있습니다. 그 정도야 저희 집에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하고 태연스럽게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현감은 내심 크게 놀랐다. 그것도 그럴 것이 탕건이 당시 모자 대용으로 쓰는 것이라 하나나 두 개 정도가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현감이 놀리려고 한 말에 그것도 100개나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러자 현감은 즉시 관원을 불러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래도 고좌수는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였다.

그래서 정의현 관원이 고좌수를 데리고 상위미로 향하였다. 그때 고좌수는 관원을 따라가면서도 근심이 가득하였다.

사실 집에는 탕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탄로 나면 자기는 곤경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했다.

그래서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한남리 사령골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고좌수가 엄숙한 태도를 취하며 “현청의 높으신 관원을 땅을 밟고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기다리시면 제가 먼저 집에 가서 이곳까지 배와 무명을 깔도록 할 터이니 그런 후 그 피륙 위를 밟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그 관원은 자기를 높이 우러러보는 줄 알고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자 고좌수는 거의 뛰다시피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황급히 일부 하인들에게는 위미리 마을안을 돌아다니며 탕건 100개를 수거해 오도록 하고 일부 하인에게는 창고에 있는 배와 무명을 꺼내어 한 줄로 한남리 사령골까지 깔도록 하였다.

그런 후 고좌수는 초조하게 탕건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하인들이 헐레벌떡 탕건 100개를 짊어지고 도착하였다.

이를 보자 고좌수는 ‘살았다!’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를 창고에 넣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관원을 상위미 집으로 모시도록 하였다.

그 관원은 길에 칸 천위를 걸어 고좌수 집에 이르니 대기하던 고좌수가 정중하게 맞이하였다. 우선 탕건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고좌수가 앞장서서 창고안으로 안내하였다. 바라보니 100여개나 되는 탕건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일이 현청에 보고되자 고좌수의 명성은 정의현 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떨쳤다. 이런 고좌수도 그 수명은 끝이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의현청에 혼자 다녀오다가 그만 술에 취해 한남리 사령골에서 얼어 죽고 말았다. 그런 며칠 후 길을 지나가던 한 청년에 의해 고좌수의 시신은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세히 살펴보니 이때까지 자신을 못 살게 굴었던 바로 그 고좌수가 아닌가? 그 청년은 순간 분노를 느낀 나머지 허리에 차고 있던 낫을 꺼내어 시신에 있는 성기를 절단하고 그것을 시신이 입에다 물려버린 해괴한 일을 저질렀다.

한편 고좌수 가족들은 뒤늦게 사망소식을 듣고 비참한 죽음이지만 체면 때문에 성대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래서 육지에서 유명한 지관을 청해 와서 명당터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육지지관이 현지에 도착해서 소문을 들으니 고좌수가 재력과 위세가 도도했지만 워낙 인심을 잃고 있어서 좋은 음택(뫓자리)을 보아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을 소모하고 뫓자리 보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고좌수 부인은 지관이 하는 일 없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여일이 지나도록 무의도식하고 있었으나 시치미를 떼고 정성껏 대접하였다.

이에 그 지관은 망인은 비록 달갑지 않았지만 그 부인의 마음씨에 탄복하여 부인과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명당자리를 골라주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 뒷날부터 정의현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지금의 위미2리 대성동 지경에 뫓자리를 하나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뫓자리를 보아는 후 그 지관은 고좌수의 부인을 불러서 주위를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곳은 ‘황년지지’라는 명당터인데, 하관을 할 때는 누구도 접근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부인과 믿을 수 있는 충직한 하인 한 명만 거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바뀌도록 엮어서 매장을 하고 일이 끝난 후는 앞으로 3년간 무슨 일이 있어도 무덤을 파헤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꼭 지켜야 가문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는 지관은 즉시 떠나가 버렸다.

이런 후 상가에서는 임시토롱을 했던 고좌수의 시신을 묘소로 옮겨 매장을 하게 되었다. 이때 부인은 지관이 하던 말을 명심하여 일가친척들에게 지관이 특별히 당부한 일이라며 하관은 저와 충직한 하인 한 사람만이 하겠으니 이해를 해 달라고 했다.

일가에서는 이상케 생각은 하면서도 지관이 시킨 일이라고 하니 부인이 하는 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부인과 나이 든 하인 한 사람만이 하관을 하려고 천막을 쳐서 외부사람이 보지 못하게 한 후에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부인이 관을 얹어서 묻으라고 하자 하인은 깜짝 놀라며 잘못하시는 일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다 지관이 시키는 일이니 너는 아무 소리 말라.”고 엄명하고 관을 얹어놓고 개관을 덮었다. 그리고 하인에게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니 앞으로 입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 하여 이상한 장례가 끝났고 그럭저럭 유수같은 세월이 흘렀다. 고좌수의 아들 형제도 성장하면서 큰 키에 힘도 몰라보게 불끈불끈 솟구쳐 자꾸 밖에 나가 싸움을 하고 힘자랑을 하게 되었다. 이 소문은 이 동네 저 동네 퍼졌고 정의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때 부인은 아들들이 천하장사가 되어가는 것을 보고 아마도 그 뿔자리 기운으로 장수가 나게 될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부인은 두 아들을 불러 앉이고는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람이란 때가 올 때까지 근신하고 기다려야 하니 경거망동은 삼가도록 엄중히 타일렀다.

그러나 아들은 방자하기 이를 데 없었고 더구나 큰 아들은 “이 좁은 제주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좀 더 큰 뜻을 펴보겠다.”며 한양으로 가버렸다.

집에 남은 작은 아들은 형마저 없으니 온통 자기세상을 만난 것처럼 동네 사람과도 싸움질을 하여 두드리기 일쑤였고, 심지어는 아버지때부터 재산을 일구어 놓은 충직한 하인들에게까지 난폭한 짓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하인들도 이 덕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충직한 하인이 “이 놈아, 제 애비 시신도 뒤집어 묻은 주제에 왜 그렇게 망동을 부리느냐.”며 핀잔을 주고는 훌쩍 떠나버렸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둘째가 “이게 웬 말이나?”며 그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

래서 방금 하인에게 들었다며 아버지 시신을 얻어 묻은 게 사실이나고 따져 물었다.

처음에는 그런 일 없다고 딱 잡아떼던 어머니도 둘째가 아버지 시신을 얻어 묻었다면 불효라며 계속 다그치자 사실은 우리 가문을 흥하게 하기 위하여 지관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니 너는 모른 척 하라고 조용히 타일렀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둘째가 아니었다. 어머니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역군들을 이끌고 고좌수의 묘로 가서 파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하여 개관을 걷어내자마자 황새 두 마리가 뒷발을 세우고 막 날려는 자세로 있다가 그만 ‘푸드덕~’하고 날아가 버렸다. 앗~ 모여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아~ 우리 가문은 이제 망했구나.”하고 장탄식을 하다가 큰 며느리를 즉시 불렀다. 며느리가 들어오자 “애야, 우리 가문은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두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 숨어 살아라. 그리고 어린애를 잘 키워 우리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라!”고 간곡하게 주문을 하였다.

그렇게 하여 며느리가 어린 손자를 얻고 집을 막나가자마자 큰 아들이 서울에서 중죄를 지어 관아에 잡혔다는 기별이 왔다.

그러나 비운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얼마 없어 현청에서 관원들이 들이닥쳐 가택수색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부인도 알지도 못하였는데 집안을 뒤진 관원들은 마룻장 밑에서 당시 민가에 소지를 못하게 한 화약이 석 섬이 나왔고, 담배씨도 한 섬이나 나왔다.

이러자 관원들은 이 물건이 역적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감추어 놓은 게 아니냐고 추궁하였다. 부인과 둘째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였지만 집안에서 엄연히 화약과 담배씨가 나왔으니 변명해 보았자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부인과 둘째는 관아에 잡혀가고 고좌수 가문은 망해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상위미에 있는 큰터왓의 ‘쥐두리터’에서는 기와편과 각종 질그릇 파편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고좌수의 집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한다.⁷⁴⁾

74) 남제주군 문화유산, 남제주문화원, 2006, 383~386쪽

○ 개화를 선도한 위미항

일제 강점기인 1922년 12월에 일제는 한반도와 일본간에 자유도항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23년 6월부터 제주~오사카(大阪)간 항로에 취역한 기미가요마루(君代丸 930톤)가 도내 주요항구를 빙돌면서 도내 젊은이들을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공업지대로 실어 날랐다.

1929년의 경우 제주도에서 22,487명이 일본으로 떠났는데 그중 위미항을 이용한 승객은 2,357명이나 되어 서귀포시 관내에서는 가장 많이 도일한 항구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미항에 모여들게 되니 위미항 주변에는 상공업이 뒤따라 일어나게 되었다.

○ 위미1리 앞개 서쪽편 냇빌레 지경의 밍금애에서는 소형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초기 선박산업이 일어났다.

○ 조천 출신 황순하(黃舜河)씨가 위미항 북쪽 고망물 위쪽에 소주공장을 세워 순도 35도가 넘는 술을 제조하니 부산과 목포등지에서 대 인기였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 이 돈으로 후에 오현학원을 세워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였다.

○ 조천 출신 김재방과 황지하가 각각 위미항 입구(현 신용협동조합 자리)에 당시 전방(塵房)이라 부르는 잡화상을 개설하니 대호황이었다.

○ 위미항 입구에 이 마을 정난향 여사가 여관을 개설하였으니 도일하기 위해 모여든 이용객들이 끊이질 않았다.

○ 대정 출신 고은표가 위미항으로 들어가는 입구 일주도로 남측에 이발소를 열었다. 당시 남원면에서 단 하나의 이발소라 모여든 이용객들로 분주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뭐 이게 대단한 일이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문명에 소외되었던 농촌주민들에게는 신 문명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게

당시 남원면에서는 근대 상공업의 효시였고, 따라서 후에 위미리지역 개화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12. 위미2리의 설촌유래

위미2리는 동쪽은 위미3리이고, 서쪽은 위미1리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한남리와 접하고 있다.

위미2리의 옛 이름은 ‘뽕미’, ‘뽕밧개’이다. 남사록(南槎錄 권3, 1601~1602)과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漢拏



壯囑, 1703) 등에 우미포(又尾浦 : 뽕밧개), 우미촌(又尾村 : 뽕미마을),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정의현, 면촌, 18세기 후반)에 우미촌(又尾村 : 뽕미마을),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 등에 우미리(又美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동위미리(東爲美里),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 1904)에 동미(東美 : 동위미)로 표시되어 있다.⁷⁵⁾

1601년(선조 34) 안무어사(按撫御使)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쓴 남사록(南槎錄)에는 정의현의 수록군을 열거하며 병선을 정박시킬만한 포구로 현 서쪽 30리에 우미포(又尾浦)가 있다고 적었다.

이 마을에는 1500년(연산군 6)경에 자배봉수(資盃烽燧)를 설치하여 왜구내침을 감시하였으므로 그 이전부터 위미리에 취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위

75)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7~318쪽

미리 설촌은 1600년경에 현 위미1리경 상위미 큰터왓에 고좌수(高座首)가 정착을 한 이래, 위미2리경 신세기마루에 성씨(成氏)가 들어와 살았다. 또한 안가름(현 상원동) 일대에 양천허씨(陽川許氏), 남양홍씨(南陽洪氏), 신천강씨(信川康氏) 등이 들어왔고, 그들이 살았던 터를 지금도 홍비장터, 강의방터라 전해져 내려온다. 그 후 250여년 전에는 군위오씨(軍威吳氏), 제주고씨(濟州高氏), 연주현씨(延州玄氏)가 들어와 거주하면서 마을이 커졌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兪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8세기 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우미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116호, 남자는 341명, 여자는 439명이다.(又尾里自官門西距四十里 民戶一百十六 男三百四十一 女四百三十九)라고 하였다.⁷⁶⁾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 동위미의 연가는 69호이다. 남자 136명과 여자 158명을 합하여 289명이고, 초가는 189칸이다.(東美 煙家六十九戶 男一百三十六口 女一百五十八口 舍二百八十九口 草家一百八十九間)라고 하였다.⁷⁷⁾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미리(爲美里)는 19세기말에 이르러 동위미(東爲美)와 서위미(西爲美)로 나뉘었다. 동위미와 서위미의 중간음인 위(爲)를 생략하여 동미

76) 남제주군 문화유적분포도, 남제주군, 2003, 210쪽

77)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7쪽
(남, 여 합계가 틀림)

(東美), 서미(西美)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에는 또 신미(新美)가 분리되어 동미, 서미, 신미 등 3개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3개 마을은 1910년 이전에 위미로 통합된 듯하다.⁷⁸⁾

그리고 마을명칭은 18세기에는 우미리(又尾里), 19세기중후반에는 우미리(又美里)로 되었다. 그러다 19세기말에 위미리(爲美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위미라는 용어는 「논어(論語)」 이인(里仁)편 제26장중 제1장에 ‘자왈이인위미(子曰里仁爲美)하니 택불처인언득지(擇不處仁焉得智)리요’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뜻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질어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리오.’라는 데서 위미라는 마을명칭을 붙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위미2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한 일이 있었으며 그후 위미1리와 2리로 나누어졌고, 1989년 4월 6일에는 위미2리에서 위미3리가 분할되었다.

현재 위미2리는 세천동(細川洞), 상원동(上元洞), 대성동(大成洞), 대원상동(大原上洞), 대원하동(大原下洞) 등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세천동은 근내골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근내는 ㄹ는내 즉 좁은 하천을 가리킨다. 위미2리 가장 동쪽에 있는 동네이다. 상원동은 동카름의 마을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안카름인데 1940년 강인규 구장이 유지들과 의논하여 상원동으로 개칭하였고, 위미2리 가장 서쪽에 있는 동네이다. 대성동은 위미2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자배봉 남쪽 망앞(望前) 일대에 형성된 동네이다. 대원동은 상원동 동쪽 일대에 형성된 동네로 동쪽은 대원상동, 서쪽은 대원하동으로 나누어진다.⁷⁹⁾

78)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18쪽

79)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33쪽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위미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위미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가 되었다.

13. 위미3리의 설촌유래

위미3리는 동쪽은 남원리이고, 서쪽은 위미2리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한남리와 접하고 있다.

이 마을 경계선에 있는 남원리 2490~8번지에는 1439년(세종 21) 금로포연대(金路浦煙臺)를 축조하였다. 이 금로포연대를 ‘셀로개연대’라고도 칭하였다. 이에 따라 연디, 연딧벵디, 일제강점기 50,000분지 1 지형도에는 한자로 연대동(煙臺洞)으로 표시하였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설치함에 따라 이 마을은 호아현 관할이었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우미리(又尾里)가 되었다.

이 마을의 설촌은 1833년(순조 33) 374번지에 고영훈(高榮訓)이 정착하면서 차차 입주자가 늘어 30여호 가까운 동네로 발전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우미리(又美里)가 되었고, 이 마을은 종정동(宗正洞)이라 개칭하여 위미리에 속해 있었다.

위미라는 용어는 「논어(論語)」 이인(里仁)편 제26장중 제1장에 ‘자왈이인위미(子曰里仁爲美)하니 택불처인언득지(擇不處仁焉得智)리요’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 뜻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풍속이 어질어야 사람의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것이니 어진 곳을 택하여 살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으리오.’라는 데서 위미라는 마을명칭을 붙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위미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위미3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위미리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48년 11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은 큰 피해를 당하였다. 따라서 방위인력 부족으로 할 수 없이 남원리와 위미리 등지로 소개를 하였다가 43사건이 어느 정도 소강국면에 접어든 1952년 다시 40여호가 되돌아와 마을을 재건하였다.

현재 위미3리는 종정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정골, 종정굴로도 불리는데 종정의 뜻은 확실하지 않다. 그 후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하자 남원읍 위미2리가 되었고, 1989년 4월 6일에는 종정동은 위미3리로 분리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위미3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가 되었다.

14. 신례1리의 설촌유래

신례1리는 동쪽은 위미1리이고, 서쪽은 하례리이며, 남쪽은 신례2리, 북쪽은 교래리와 접하고 있다.

신례1리의 옛 이름은 ‘호아촌(狐兒村)’ 또는 ‘호촌(狐村)’이라 하였다. 그 동안 각종 책자 등에 호아, 호촌 등으로 기



록되어 있는데, 1653년(효종 4)에 간행된 탐라지 건치연혁조에 보면 1300년(충렬왕 26)에 도내에 현촌(縣村)을 설치 하였고, 그 중에 ‘호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908년(융희 2)에 간행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군치(郡置)연혁 전라도조에는 ‘호아’로 기록하였다. 한편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정의·대정 고적조에는 ‘호아’는 일명 ‘호촌’이라 한다고 되어있어 ‘호아’가 나중에 ‘호촌’으로 변경된 듯하며 지명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⁰⁾

80) 제주도지 제1권, 제주도, 1993, 717쪽

그후 예촌, 예촌으로 불려왔고 하례리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호아현(狐兒縣), 조선시대에 한때 호촌면(狐村面)의 중심마을 역할을 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 16년 5월 정유 5일)에 호아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 호촌리, 탐라도(耽羅圖, 17세기말)에 호촌(狐村), 탐라지(耽羅誌, 1653)에 호촌리(狐村里),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와 제주삼읍총지도(濟州三邑總地圖, 18세기중반) 등에 호촌(狐村), 호구총수(戶口總數, 1789, 정의·호촌면)에 호촌리(狐村里),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와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 등에 예촌리(禮村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상예촌리(上禮村里)라 하였다.

이 마을의 설촌은 1300년(충렬왕 26)에 호아현이 신하례리 지방에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마을에는 성씨(成氏), 문씨(文氏), 조씨(趙氏)가 들어와 설촌하였다고 하며, 그 근거로 ‘성구성이왓(1002번지)’, ‘문세운이터(1005번지)’, ‘조조기돌래(992번지)’ 등 지명이 현존하고 있다. 처음 들어온 성문조 삼씨가 거주한 이후 점차 제주양씨(濟州梁氏), 광산김씨(光山金氏), 군위오씨(軍威吳氏), 동래정씨(東萊鄭氏), 연안김씨(延安金氏), 연안이씨(延安李氏), 나주김씨(羅州金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등이 입주하여 마을은 확대되어 갔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두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한때 정의현 호촌면(狐村面)을 설치하였다. 바로 그 중심마을이 오늘날의 신례리와 하례리였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호촌리(狐村里)는 정의현 관할이었다.

18세기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호촌리(狐村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호촌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

쪽으로 45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49호, 남자는 146명, 여자는 181명이다.(狐村里 自官門西距四十五里 民戶四十九 男一百四十六 女一百八十一)라고 하였다.⁸¹⁾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호촌리(狐村里)가 되었다. 1750년(영조 26)에 호촌리 서남부에 오지리(烏旨里, 까마귀 마을)가 설촌되었다. 그러나 호촌리라는 마을명칭은 그대로 사용한 듯하다. 1813년(순조 13)에 호촌리는 예촌리(禮村里)로, 오지리(烏旨里)는 분리되면서 오지리(梧旨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875년(고종 12)에 마을명칭이 상예촌리(上禮村里)로 변경되었으나 얼마없어 다시 예촌리로 환원되었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예촌리(禮村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 예촌마을의 연가는 144호이다. 남자 316명과 여자 353명을 합하여 669명이고, 초가는 144칸이다.(禮村 煙家一百四十四戶 男三百十六口 女三百五十三口 合六百六十九口 草家一百四十四間)라고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예촌리에 위미리 일부(생길악지역), 하예촌리 지역일부(탁남벵디 일부)를 병합하여 신례리(新禮里)라 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신례리가 되었다. 1915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신례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해변마을은 일약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 반면에 정의읍성이 있었던 성읍리에서 시작하여 신흥2리, 의귀리, 한남리, 신례1리를 경유하여 우면(후에 서귀면)으로 이어지던 교통체제는 그 효용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신례1리를 비롯한 중산간 마을은 점차 지역사회발전이 둔화되고 말았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신례리가 되었다. 그 당시 신례리는 현재의 중산간도로를 경계로 하여 북은 1구, 남

81)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28쪽

은 2구였다. 신례리는 사가동(四街洞), 만지동(滿池洞), 역원동을 관할하였고, 신례리 2구는 공천포(貢泉浦), 부전동(釜田洞), 상방동(上方洞), 종남동(宗南洞)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48년 43사건으로 신례1리는 큰 피해를 당하였고, 12월 12일 공천포로 소개하여 한 겨울을 보낸 후 1949년 3월에 신례1리 사가동에 축성을 하고 다시 올라왔다. 1949년 9월 1일 지금의 한전변전소사옥 뒷길 즉, 상방터와 종남동을 잇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북은 신례1리, 남은 신례2리로 획정하였다.

현재 신례1리는 사가동(四街洞), 만지동(滿池洞), 역원동, 부전동(釜田洞) 등 4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사가동은 마을중심 네거리에 형성된 동네라 하여 한자차용표기로 사가동이라 하였다. 만지동은 마을 서북부 만지넷도 서쪽에 위치한 동네이다. 역원동은 사가동 남쪽에 형성된 동네이며, 부전동은 마을 남쪽지역인 속칭 가마왓부근에 형성된 동네이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신례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례1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가 되었다.

15. 신례2리의 설촌유래

신례2리는 동쪽은 위미 1리이고, 서쪽은 하례1리이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신례1리와 접하고 있다.

신례2리의 옛 이름은 ‘공새미(貢泉味)’였다. 바닷가에서 양질의 생수가 풍부하게 솟아올라 공새미(송샘)이라 불리웠다.



오늘날 한자차용표기로 공천포(貢泉浦), 공천포(公泉浦), 공천포(空泉浦) 등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이 마을의 설촌시기는 불과 140여년 밖에 안 되지만 신례천넷가 동쪽바위에 비교적 규모가 큰 2개의 큰 바위그늘집자리가 발견되었고, 이곳에서 적갈색 토기편을 수습하였다. 또한 신례리 지석묘 제1호(우뜰ㄹ루)와 신례리 지석묘 제2호(너븐들)가 이 고장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이는 탐라초기(BC200~AD200)에 만들

어진 것으로 이 부근에는 기원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⁸²⁾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두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한때 정의현 호촌면(狐村面)을 설치하였다. 바로 그 중심마을이 오늘날의 신례리와 하례리였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이 마을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이 마을의 설촌역사는 전라남도 해남에 살던 윤인호(尹仁好)가 1834년겨에 제주에 유배되어 지금의 조천읍 동백동이라는 곳에 살았다. 그 아들인 윤성표(尹聖表)가 구성녀(具成女)라는 배필을 맞아 혼인을 하여 살다가 1873년(고종 10)에 따듯하고 물 좋은 땅 신례2리(貢泉浦公泉浦)를 찾아와 정착하게 되었다. 이곳은 바닷가이므로 어자원이 풍부하고 모래판 사이로 풍부한 생수가 용출하여 살기에 적합한 곳이므로 인근 위미리에서 연안김씨(延安金氏)와 하례리에서 제주양씨(濟州梁氏) 등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공천포라는 마을이 형성되었다.⁸³⁾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예촌리가 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예촌리에 위미리 일부(생길약지역), 하예촌리 일부(닥남벵디 일부)를 병합하여 신례리(新禮里)라 하였는데 공천포도 신례리에 속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신례리가 되었다. 1915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신례리가 되었고,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이 마을은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

82)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44~147쪽

공천포지, 남원읍 신례2리, 1994, 33~41쪽

83) 공천포지, 남원읍 신례2리, 1994, 70쪽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신례리가 되었다 그 당시 신례리는 현재의 중산간도로를 경계로 하여 북은 1구, 남은 2구였다. 신례리 2구는 공천포(貢泉浦), 부전동(釜田洞), 상방동(上方洞), 종남동(宗南洞)을 관할하였는데 상방동과 종남동은 1948년 4·3사건으로 폐동이 되었다.

현재 신례2리는 공천포(貢泉浦)와 황학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공천포는 바닷가 동네로 주민들이 거의가 이곳에 모여산다. 바닷가에 천연적으로 좋은 용천수가 솟아나 호아현에 청정한 샘물을 바친다하여 공샘미로 불리웠다. 황학동은 공천포 북쪽 신례1리와 접해있는 동네이며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하여 항애골로 부르게 되었고 이를 황학동이라고도 한다.

1949년 9월 1일 지금의 한전변전소사옥 뒷길 즉, 상방터와 종남동을 잇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북은 신례1리, 남은 신례2리로 확정하였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신례2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신례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가 되었다.

16. 하례1리의 설촌유래

하례1리는 동쪽은 신례리이고, 서쪽은 효례천 넘어 하효동과 상호동이 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하례2리와 접하고 있다.

하례1리의 옛 이름은 ‘호아촌(狐兒村)’ 또는 ‘호촌(狐村)’이라 하였다. 하례리는



신례리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호아현(狐兒縣), 조선시대의 한때 호촌면(狐村面)의 중심마을 역할을 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 16년 5월 정유 5일)에 호아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에 호촌리, 탐라도(耽羅圖, 17세기말)에 호촌(狐村), 탐라지(耽羅誌, 1653)에 호촌리(狐村里), 탐라지도(耽羅地圖, 1709)와 제주삼읍총지도(濟州三邑摠地圖, 18세기중반) 등에 호촌(狐村), 호구총수(戶口摠數, 1789, 정의·호촌면)에 호촌리(狐村里),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18세기후반, 정의현·면촌)에 오지리

(烏旨里),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 1872)와 정의군지도(旌義郡地圖, 1872) 등에 오지리(梧旨里), 정의군읍지(旌義郡邑誌, 1899)에 하예촌리(下禮村里)라 하였다.⁸⁴⁾

이 마을에 사람들의 거주역사를 살펴보면 효례교 북동쪽 500m지점 평탄지(유물산포지 1지구)에서 갈색토기편을, 그리고 예촌망 과수원(해안가 유물산포지)에서 소량의 토기파편을 확인하였다. 또한 효례천 냇가 동쪽절벽 바위그늘 집자리에서 공이 등 석기류, 또 한군데 효례천 동쪽절벽 바위그늘 집자리에서 항아리형 토기, 공이, 흙돌, 동물뼈 등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는 탐라전기 때인 AD200~500년 어간에 사용했던 유물들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하례1리에 사람들의 거주역사도 탐라전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사시대나 원사(原史)시대의 사람들이 계속 이 지방에서 삶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⁸⁵⁾

이 마을은 1300년(충렬왕 26)에 호아현(狐兒縣)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하례1리 설촌은 1700년 이전부터 원주 변씨(原州邊氏), 양천허씨(陽川許氏), 광산김씨(光山金氏), 1700년대가 되자 고부 이씨(古阜李氏), 신천강씨(信川康氏), 연주현씨(延州玄氏), 제주고씨(濟州高氏), 제주양씨(濟州梁氏), 연안김씨(延安金氏), 남평문씨(南平文氏), 1800년대에 경주김씨(慶州金氏) 등이 입촌하여 마을이 확장되었다.⁸⁶⁾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두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한때 정의현 호촌면(狐村面)을 설치하였다. 바로 그 중심마을이 오늘날의 신례리와 하례리였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정의현에는 토산현(兔山

84)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277~278, 321~322, 327~329쪽

85)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151~155쪽

86) 하례마을, 남원읍 하례리, 1998, 44~47쪽

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호촌리(狐村里)는 정의현 관할이었다. 이 마을 95-11번지 예촌망(禮村望)에는 1439년(세종 21) 호촌봉수(狐村烽燧)를 축조하여 왜구의 내침을 감시하였다.

18세기후반에 이르러 정의현 호촌면(狐村面) 호촌리(狐村里)가 되었다. 18세기말에 쓰여진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중면)에는 호촌리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45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49호, 남자는 146명, 여자는 181명이다.(狐村里自官門西距四十五里 民戶四十九 男一百四十六 女一百八十一)라고 하였다.⁸⁷⁾

18세기말에 정의현의 면을 방위명(方位名)을 따라 개편할 때 정의현 중면 호촌리(狐村里)가 되었다.

1750년(영조 26)에 이르러 가마귀마루에 사는 대표 7호(原州邊氏, 古阜李氏, 信川康氏, 延州玄氏, 濟州梁氏, 延州玄氏, 南平文氏)가 모여 협의 끝에 새로운 마을을 탄생시키고 마을이름을 오지리(烏旨里 : 가마귀마루)라 하였다.⁸⁸⁾ 그러나 가마귀집 같다고 하여 오지리(烏旨里)라고 칭했던 마을이름은 당시 현감의 인증을 받지 않고 마을자체 내에서만 통용되었던 명칭인 것 같다. 그것은 이후에도 호촌이라는 마을이름이 지도나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1813년(순조 13)에 오지리(烏旨里)를 오지리(梧旨里)로 개칭하였고, 1875년(고종 12)에는 하예촌리(下禮村里)로 변경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하예촌리(下禮村里)가 되었다.

1904년(광무 8)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 정의군 서중면)에 하예촌리 연가는 92호이다. 남자 203명과 여자 201명을 합하여 404명이고, 초가는 280칸이다.(下禮 煙家九十二戶 男二百三口 女二百一口 舍四百四口 草家二百八十間)라고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행정구역폐합에 따라 하예촌리는 신례리 일부와 상호리 일부를 통합함과 동시에 하예촌리를 하례리

87) 남원읍 역사문화지,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8, 328쪽

88) 하례마을, 남원읍 하례2리, 1998, 41~42쪽

(下禮里)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관할이었다.⁸⁹⁾

1915년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하례리가 되었다.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주도로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하례1리는 일약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가 되었다. 1945년초에 학림동 주민들이 당국에 건의하여 하례2구가 분리되었다. 그러나 1948년 43사건으로 그해 11월하순에 하례2구 주민들은 해안마을인 하례1리 등으로 소개를 하였다. 그러나 즉시 복구가 되지 않아 하례2구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행정마을인 구(區)로서의 기능을 자동 상실하였다. 1949년 1월 3일에는 무장대의 습격으로 주민들이 희생되는 등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다.

1962년 6월 9일 43사건으로 소개가 되었던 학림동(鶴林洞)지역을 다시 복구하여 재건하였다. 1965년 4월 8일에는 하례2리가 승격되어 하례1리에서 행정리가 분리되었다.

현재 하례1리는 태성동(太成洞), 장성동(長成洞), 망장포(望場浦) 등 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태성동은 하례1리 동남부에 형성된 동네로 크게 이룬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장성동은 하례1리 중심마을 서쪽에 위치하여 그 형상이 하천으로 빙 에워싸여 마치 성을 두른듯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장포는 하례1리 동남쪽 바닷가에 형성된 동네이며, 왜구의 내침을 살펴 봉화를 올리는 등 방어시설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강장포(綱張浦)라고도 했는데 바다에 그물을 많이 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하례1리가 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하례1리는 제주특

89) 오창명 제주도마을이름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338~339쪽

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가 되었다.

17. 하례2리의 설촌유래

하례2리는 동쪽은 신례 1리이고, 서쪽은 효례천 넘어 상호동이며, 남쪽은 하례1리이고, 북쪽은 교래리와 아라동에 접하고 있다.

하례2리의 옛 이름은 ‘직세’라 하였고, 일제강점기때 50,000분의 1 지도에는 직사동(直舍洞)으로 표기하였다. 원래 이 마을은 예부터 호아촌(狐兒村) 또는 호촌리(狐村里)에 속해 있었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관할 속현(屬縣)으로 호아현(狐兒縣)을 두었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한때 정의현 호촌면(狐村面)을 설치하였다. 바로 그 중심마을이 오늘날의 신례리와 하례리였다.

1416년(태종 16)에 종래 제주목이 관장하던 산남의 200리 땅을 양분하고 정의현(旌義縣)과 대정현(大靜縣)을 설치하였다. 이때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다. 따라서 이 마을은 정의현 관할이었다.

1429년(세종 11)부터 성종어간에 제주도의 해발 200~400m 어간의 야초지를 빙 둘러 목마장을 설치하고 이를 10개 소장으로 나누었다. 그중 9소장은 서귀포소장 관내의 국축마(國畜馬)와 사둔마(私屯馬)를 점검하는 곳이 바로 이곳 1656번지를 중심으로 한 직사(直舍)땅이었다. 이 점마소 북편으로는 팽나무 등을 비롯한 오래된 고목들이 울울창창하게 자라며 병풍바위가 동서로 길게 뻗어 절묘한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의현에서 시작하여 중면을 넘어 우면(右面)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이 마을을 거쳐 영천악(靈泉岳)과 갈악산(葛岳山) 사이로 뚫려있었다.

영천악은 하례2리 마을 바로 서쪽 상호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오름 서록(西麓)에 영천관(靈泉館)과 영천사(靈泉寺)가 건립되어 있었다. 그 당시 영천관은 정의현과 대정현을 왕래하는 관리들과 제9소장의 점마를 위해 내방하는 관리들이 유숙하는 관립여관이었다.

원래 이 마을의 설촌은 지금으로부터 500여년전 조세진(趙世珍)이란 사람이 단신으로 육지에서 들어와 지금의 섬밀도 북측 금물과원(禁物果園)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화전민들은 벵디왓, 올난도, 어웁도, 발진마루 등지에 모여들어 화전을 일구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화전민들이 점차 아랫마을로 내려와 직사, 돈드르, 두수오름(頭首岳) 북쪽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1750년(영조 26)에 현재 하례1리 지경이 가마귀집 같다고 해서 마을이름을 오지리(烏旨里)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마을명칭은 현감의 인증을 받지 않고 마을자체 내에서만 통용되었던 이름인 것 같다. 그것은 이후에도 호촌이라는 이름이 지도나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1813년(순조 13)에 오지리(烏旨里)를 오지리(梧旨里)로 개칭하였고, 1875년(고

중 12)에는 하예촌리(下禮村里)로 변경하였다.

19세기 중후반에 종래의 중면을 송천(松川)을 경계로 하여 동은 동중면(東中面), 서는 서중면(西中面)으로 분리함에 따라 서중면 하예촌리(下禮村里)가 되었다.

1910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1914년에 정의군은 폐지되었고, 전라남도 제주군 서중면 관할이었다. 또한 하예촌리(下禮村里)를 하례리(下禮里)로 개칭하였다. 1915년에는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서중면 하례리가 되었다. 직세땅은 바로 하례리 일부였다.

1935년 4월 1일에는 서중면이 남원면으로 개칭되었다. 1945년초에 하례리 본동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을 느낀 나머지 마을주민들은 당국에 건의하여 하례2구로 인가를 받았다. 초대 구장에는 부윤방(夫允芳)이었다. 1945년 8월 15일에 조국이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에 따라 남제주군 남원면 하례리가 되었다.

1948년에 43사건이 발발하자 그해 11월하순에 해안마을로 소개를 당하였고 14년 동안 폐허처럼 지내다가 겨우 1962년 6월 9일에야 마을을 재건하였다. 1965년 4월 8일에는 하례2리가 승격되었고, 1967년에 녹곤수 동산과 두수오름어간 야초지대에 양마(洋麻)단지가 조성하여 33세대가 입주하였고 황무지 100정보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공업화과정에서 나일론사가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양마재배를 포기하였다. 그래서 양마단지가 공업원료작물단지로 다시 감귤단지로 변경되었다.

현재 이 마을은 학림동(鶴林洞)과 감귤단지(柑橘團地)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학림동은 제2호례교 북쪽 200m지점 예기소 입구 계곡일대가 학(鶴)의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학림계곡이라 하였다. 바로 이 계곡위에 형성된 동네라 하여 학림동이라 하였고, 감귤단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1980년 12월 1일 남원면이 읍으로 승격되자 남원읍 하례2리가 되었다. 이 지역은 5·16도로 인근에 놓여있고 서귀포시 중심부와 멀지않은 곳에 자리 잡은 관계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시험장이 1994년 7월 8일에 개소되었다. 또한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가 1996년 12월 26일에 이곳으로 이전하였고, 2006년 7월 1일 구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져 서귀포농업기술센터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리고 2008년 8월 7일에는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이 마을 1558번지에 신

설되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동일자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남제주군은 폐지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시인 서귀포시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하례2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가 되었다.

○ 하례2리 전설

<하례2리 설촌과 조세진>

고려를 개국할 때 풍양(豊壤)인으로 조맹(趙孟)이라는 개국공신이 있었다. 그 12세 손인 조세진(趙世珍)은 조선 성종연간(1470~1494)에 혈혈단신으로 입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낯선 땅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원래가 지혜롭고 영특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형도 좋은 곳을 택했다.

그는 무주공산과 같이 아무도 살지 않은 썸밀도 북편에 입주를 하여 하례2리에 첫 설촌자가 되었다. 그 지경은 동쪽에서 시작한 능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참을 가다 남쪽으로 흘러내렸다.

그 위에는 푸른 상록수가 덮여있고 그 바로 남쪽부터 양지바른 평지가 형성되었으니 기름진 옥토였다.

그 분지 남쪽으로는 서쪽에서 효례천이 동으로 흘러와 남쪽인 바다로 내려간다. 그 하천 북편 밀림속에서 생수가 쿵쿵 솟아오르니 이게 썸밀도였다.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양지바른 땅이고 좌청룡우백호가 갖추어진 명당이었다.

그뿐 아니라 정의현과 대정현간 중간 위치에 놓여있고 더욱이 정의대정간 도로가 이 분지남쪽을 지나니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그러니 관원이나 일반주민들이 지나가 다가는 이 조세진 댁에서 유숙을 하게 마련이라 가히 원(院)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요지에서 이재(理財)에 능한 조세진은 주막을 경영하여 어느새 거부로 성장하였다.

그 당시 이 고장의 부자라면 조세진과 그 동쪽 예촌마을에 사는 양수진(梁壽津)을 꼽을 정도였다.

이렇게 소문이 정의현에 퍼지자 관가에서는 이들이 혹시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닌가하고 관원이 나와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고을 관원이 조사를 나온다는 전달을 받은 조세진과 양수진 두 사람은 위미리 망오름(자배봉)까지 배와 무명을 일렬로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관원이 도착하자 두 사람은 이를 맞이하여 천위로만 견제한후 예촌에 당도하였다. 양수진 댁에 도착한 관원은 “소문난 부자라면 무엇이든지 안 가진 게 없어야 하는데, 혹시 총과 화약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당시 총과 화약이 은밀히 민가에 공급되어 반란을 꾀하는 자들이 이를 이용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관청에서는 이를 색출하여 소지한 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물음에 양수진은 “저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관원은 “그러면 당신은 별로 부자가 아니구먼.”하면서 서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래서 조세진댁에 이르렀다. 조세진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산해진미로 차린 음식을 대접하고 재산이 많음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었다.

이때 관원이 “예촌 양수진은 부자라 해도 별로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 양수진보다는 한결 잘 사는 부자로 보인다. 요즘 부자라면 총과 화약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유도질문을 하니 조세진은 주저함이 없이 총과 화약이 없는데도 “예, 가지고 있습니다.”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였다.

그러자 관원은 대동한 포졸들에게 “여봐라, 이놈을 당장 결박하여라.”하니, 우르르 포졸이 달려들어 단번에 묶어버리고 말았다.

조세진은 자신을 과시하려다 그만 관원의 유도질문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죄인이 되고 말았다. 백번 후회해 보아도 소용이 없었다. 다행히 체형은 주지 않고 관청에서 재산만 몰수하고 이 마을에서 쫓아버리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곳에서 울분을 삭이며 조세진은 서상효로 가서 정착하였다. 그는 서상효에 물이 없음을 알고 수맥을 찾아 우물을 팠더니 지하수가 용출하였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해결하였으니 후세인들이 그 공을 잊지 않고 조가물(조개물)이라 명명을 하였다.

조세진은 서상효에 살면서도 옛친구인 예촌 양수진과 사돈을 맺었다.

그러니 조세진의 딸이 양수진의 아들인 양담(梁潭)과 혼인을 하였다. 서상효에서 2대를 거주한 조씨일가는 3대째 성읍리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후손들이 발복하여 성읍, 표선, 수산 등지에서 많이 분포되어 잘 살아 가고 있다. 하례2리 조세진이 살던 땅은 1526년(중종 21)경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이 조정에 진헌할 꿀을 재배하기 위하여 과원을 조성하였다. 이게 바로 금물과원이고, 하례리 1570번지일대이다.⁹⁰⁾

90) 학림지, 남원읍 하례2리, 1994, 24~26쪽